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조절 효과 검증 -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이 현 우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조절효과 검증 -

지도 이 영 실 교수

위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2월 일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이 현 우

이현우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 결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2010년 12월 일

감사의 글

“겨자씨 한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 : 31-32)

작고 소중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 크고 작은 노력이 모여 이제 다문화 가정의 사회복지를 위한 씨앗으로 자라가기를 희망합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석사논문부터 박사논문에 이르기까지 논문의 전반적 내용을 세밀하게 지도하면서 논문의 큰 틀을 알게 해주신 지도교수님이신 이영실 교수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 심사위원장 박용순 교수님, 심사위원 조춘범 교수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논문에 대해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봉길 교수님,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지도해주신 문재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우정으로 지지해준 영원한 친구 이영환 교수, 주창배, 안기상 선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중국어와 베트남어 번역을 맡아주신 김연옥 선생과 김수정 선생에게 감사드리고 함께 공부하며 지지와 격려로 용기를 준 임정문, 강윤경 선생과 이창주 선생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아끼지 않고 협력해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김경례 선생, 김성철과 김지철 선생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학문적 성과가 있기까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직장 선후배, 동료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항상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힘들어 할 때마다 용기를 주고 후원해준 사랑하는 후배 심근보 이사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가족복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족의 복지에 소홀했던 저에게 있어 소중한 아내 은화와 사랑하는 딸 상미, 든든한 아들 상훈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또한 나의 아버님과 어머님 영전에 이 논문을 바치고 싶습니다.

늘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예비하신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소중한 논문을 바칩니다.

2010년 12월

이 현 우

목 차

국문초록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5

3. 연구문제 ····· 6

Ⅱ. 이론적 배경 ····· 7

1. 결혼 이주여성 ····· 7

1) 결혼이주여성 실태 및 문제점 ····· 7

2)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특성 ····· 11

2. 의사소통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 ····· 14

1) 의사소통의 개념 ····· 14

2)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개념 ····· 15

3. 부부갈등 ····· 24

1) 부부갈등의 개념 ····· 24

2) 부부갈등 제 요인 ····· 26

4. 사회적 지지 ····· 33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 33

2) 사회적 지지의 유형 및 효과 ····· 38

5. 선행연구고찰 ····· 45

1)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 ····· 45

2)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 49

3)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 52

4)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 55

Ⅲ. 연구방법 ····· 62
1. 연구모형 ····· 62
2. 연구문제 및 가설 ····· 63
1) 매개효과 ····· 63
2) 조절효과 ····· 64
3. 연구의 설계 ····· 65
1) 조사의 대상 ····· 65
2) 조사도구의 구성 ····· 65
3) 조사방법과 절차 ····· 71
4) 자료 분석방법 ····· 73
4. 연구의 한계점 ····· 74

Ⅳ. 연구결과 ····· 7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75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 79
3.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 82
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의 평균차이 ····· 84
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평균차이 분석 ····· 84
2)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의 평균차이분석 ····· 86
3)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차이 분석 ····· 88

5. 측정모형 분석 ····· 90
1) 확인적 요인분석 ····· 91
2) 직접효과 모형 ····· 95
6.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분석: 부분매개 모형 중심 ····· 97
7.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 100

Ⅴ. 결론 ····· 115
1. 연구결과 요약 ····· 115
2. 논의 ····· 117
3.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 ····· 119

참고문헌 ····· 122

부록: 설문지 ····· 135
<부록 1> 중국어 설문지 ····· 135
<부록 2> 베트남어 설문지 ····· 142

Abstract ····· 151

표 목 차

<표 1> 국가별 국제결혼건수 ····· 8
<표 2>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 9
<표 3> 부부갈등의 제 요인 연구들 ····· 32
<표 4>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 37
<표 5>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 66
<표 6>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영역별 및 전체 신뢰도 ····· 67
<표 7> 부부갈등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 68
<표 8> 부부갈등의 하위영역별 및 전체 신뢰도 ····· 68
<표 9>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 70
<표 10>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 및 전체 신뢰도 ····· 70
<표 11>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 71
<표 1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76
<표 13>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78
<표 14>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 80
<표 15> 주요변인의 왜도와 첨도 ····· 81
<표 16>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 83
<표 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평균차이 ····· 85
<표 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의 평균차이 분석 ····· 87
<표 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차이 분석 ····· 89
<표 20>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도 ····· 92
<표 21> 측정 모형의 분석결과 ····· 94
<표 22> 직접효과모형의 적합도 ····· 95

<표 23> 직접효과모형의 분석결과 ····· 96
<표 24>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 98
<표 25> 부분매개모형의 분석결과 ····· 98
<표 26> 부부갈등에 대한 효과 크기 분해 ····· 99
<표 27>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 101
<표 28>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 102
<표 29>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 103
<표 30>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 105
<표 31>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 107
<표 32>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요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 109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 62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 93
<그림 3>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효과 ····· 96
<그림 4> 부분매개모형 ····· 99
<그림 5>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 110
<그림 6>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평가적 지지의 상호작용 ····· 111
<그림 7>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물질적 지지의 상호작용 ····· 112
<그림 8>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 113
<그림 9>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과 평가적 지지의 상호작용 ····· 114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실태와 문제점 및 특성, 의사소통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개념, 부부갈등의 개념 및 제요인,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유형과 효과 등 이론적 배경과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지지 등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280부를 회수하였고, 그중 214명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자료 분석방법은 SPSS 16.0 프로그램과 AMOS 5.0 프로그램을 사용.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F검증과 T검증을 통해 평균차이분석을 하였으며, 측정모형 타당성립을 위해 구조방정식에 의한 관계 분석 및 부분매개효과와 완전매개 분석을 실시하였고,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목적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접효과모형 분석의 결과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아질수록 부부갈등도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간에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선행연구

에서 살펴본 Satir의 의사소통유형에 근거하여 설문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인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평가형 의사소통, 혼란형 의사소통, 회유형 의사소통 유형의 순으로 부부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인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부분매개효과와 완전매개효과를 분석하였는바, 사회적 지지가 부분적으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인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와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이 부부갈등을 완화시켜주거나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줄이고 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Satir 의사소통훈련 집단프로그램을 사회복지실천에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Satir 의사소통이론,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과정, 듣기 기본기술 배우기, 말하기 기본기술 배우기, 의사소통 규칙 확인하기, 감정 및 감정에 대한 감정표현하기, 지각체계의 점검과 사고 표현하기, 기대와 열망 표현하기, 일치적 의사소통 표현하기, 갈등 해결을 위한 타협하기, 분노 다루기, 부부체계의 변화 등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및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지 관련 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영향관계였고,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으므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중 비난형일 때는 정서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와 관련 있는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며 회유형인 경우, 정서적, 평가적 지지와 관련 있는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지 서비스는 배우자인 남편이 지지해주는 비공식적 자원체계과 더불어 집단이나 동료,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 공식적, 사회적 자원체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이들에게 유용한 지지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사회관계망과 그와 관련된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기회 증진과 인적, 물적 사회적 지지자원 개발, 그리고 대인관계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 간 직장 및 부부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의논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자조모임'의 사회적 지지서비스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부부갈등, 사회적지지(평가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정보적지지), Satir 의사소통훈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Ⅰ. 서 론

1. 문제제기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성에 있어서 다인종 · 다민족화 되고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 또는 국제결혼을 통한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1900년대 초 근대 유학파와 일본, 하와이, 중남미 등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6.25 전쟁 직후 기지촌을 중심으로 미국 참전군인과 한국 여성과의 결혼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1990년 619건에 불과하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2008년 28,163건으로 급증하였다(통계청, 2009. 12).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건수(총 28,163)는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건수(총 8,041)와 비교해 볼 때 3.5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2008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증감률은 -1.5%로 전체 혼인 증감률 -4.6%에 비해 감소폭이 낮고, 총 혼인건수 대비 구성비는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9. 12).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집단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통합적 가족지원 체계구축이 필요할 때이다.

국제결혼에 의한 외국인 여성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농어촌 및 산업공단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국남성들의 혼인의 어려움이 있고 둘째, 한국여성이 사회진출 확대에 의한 혼인 기피 성향이 있고 셋째,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국가 간 불균등한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및 영리적 세력의 개입이 있다(강유미, 2009; 김현미, 2008;

박경동, 2007).

결혼이주여성[1]의 유입은 가정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산업공단 거주지 미혼 남성들에게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준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국제결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박경동, 2007; 박지영, 2008).

그러나 우리나라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주된 문제점은 결혼 후 언어나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강유진, 1999; 윤정숙, 2004), 가정경제의 어려움(이혜경, 2005; 양철호 등, 2003), 차별과 편견(최금해, 2006; 양선화, 2004),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한주연, 2002; 홍기혜, 2000), 가족의 문제 및 해체(강유진·김숙자; 강은령, 1989) 등이다.

McCubbin(2003)에 의하면, 이민스트레스 가설[2]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새로운 사회 및 결혼생활에서 적응하는 과정에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 사회적 격리, 차별대우 등의 스트레스요인들은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들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Yeh & Inose(2002)은 결혼이주여성들은 부부간 자라온 환경의 이질감으로 인한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부부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부부의 결혼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무엇보다

---

1)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여성을 '결혼이주여성으로 지칭하였다.

2) 이민스트레스가설: McCubbin의 가족탄력성 모델을 기반으로 가족탄력성은 하위요인인 가족스키마, 가족의 내구력강화, 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 향상에 유의미하고 외부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설.

도 부부의 의사소통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부부갈등이 높은 사람은 결혼만족이 낮거나 부부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부부갈등이 낮은 사람은 결혼만족이 높게 나오거나 부부간 원만한 의사소통이 있다 등 연구들의 결과가 송성자(1975), 박형식(2006), 김오남(2006a), 김덕자(2008), 송병호(2009), 손진분(2008), 등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에 547건에 비해 2008년에는 7,962건으로 14.5배나 늘어났음을 보여준다(통계청, 2002-2008). 일부 사례조사, 문헌분석, 통계데이터에 근거한 연구들에 의하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나 부적응의 원인을 살펴보면, 부부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금연, 2003; 양순미, 2006)과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이형철, 2008; 정천석, 2009), 심한 경우 우울, 무기력감, 사회적 편견 등에도 노출(구차순, 2007; 설경옥, 2009; 김오남, 2006a)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의 어려움 즉 언어, 가족생활, 문화적 격차에서 오는 부부 및 가족 간의 상호이해 부족 등 부부 및 가족 갈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가족의 특수성 즉 핵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통제가 항존함으로 인한 시댁과 남편과의 갈등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홍기혜, 2000). 특히, 남편과의 사고방식과 습관, 성격의 차이(강유진, 1999; 성지혜, 1996; 이규삼, 1999) 등에서 부부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한 무능력한 남편에 대해서도 불만이었으며, 결혼 안에서 남성에게 부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주여성들에게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었다(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Rhee, 1997).

광주여성발전센터(2002)가 국제결혼 한 외국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명이 상습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폭행 57%, 폭언 18%,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학대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갈등문제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한국에 온 이주여성은 한국 문화 속으로 동화되기 위해 새로운 환경, 문화와 다른 언어에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남편과 가족의 불신으로 완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과 비수용은 결혼생활에서의 좌절과 불안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부부간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한국의 부부갈등의 요인들 중 의사소통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경남(2009), 조소영(2009), 최양진(2008), 김정희(2007), 유양옥(2006), 김재록(2006), 김삼열(2006), 조기순(2005), 최은경(2005), 문희(2004), 최숙철(2001)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부부문제나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주로 오는데,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남편의 비난형 의사소통이 부부간 갈등이나 문제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부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나 부부 갈등을 호소하는 부부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많은 부부들이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를 받을수록 부부갈등이나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등 해결에 도움을 받는다는 고은비(2009), 김시연(2008), 강나정(2008), 장진아(2008), 안지영(2002), 조혜진(2001) 등의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부부 갈등이 남편의 비난형 의사소통과 상관이 있으

며 이러한 부부갈등이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서적 지지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배우자의 어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부부갈등과 부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줄이는데 사회적 지지의 어떤 변인이 영향을 주는지 알아봄으로써 한국 부부의 남편의 비난형과 정서적 지지의 완충효과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간 수행되어왔던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들은 단순실태연구 등에 국한되어 있을 뿐,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및 사회적 지지관련 연구들은 일부가 있지만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부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에 완충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매개 및 조절 변수가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에 어떤 매개적 역할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중 어떤 변수가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을 감소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문제제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부부갈등과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부갈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할 것인가?

[연구문제 3]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사이에 조절효과를 할 것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결혼 이주여성

1) 결혼이주여성 실태 및 문제점

국제결혼의 실태를 살펴볼 때, 2001~2008년 사이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즉 결혼이주여성은 총 36,204명이었다. 전체 혼인건수 중에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1.2%에서 2007년 11.1%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비를 비교하면, 한국 여성-외국인 남편의 결혼 비율은 1990년 1.0%에서 2007년 2.7%로 다소 증가한 반면, 한국 남성-외국인 아내의 결혼비율은 1990년 0.2%에서 2007년 8.4%로 무려 40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08). 결혼 이주여성들을 출신국가별로 볼 때, 주로 개발도상국이며,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남자와 외국인여자와의 혼인(통계청, 2009)은 총 28,163건으로, 중국 13,203건(46.9%), 베트남 8,282건(29.4%), 필리핀 1,857건(6.6%) 순으로 나타났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1980년대부터 특정 종교단체를 통하여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초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조선족 및 중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때, 한·중 국교수립 이후 조선족들의 취업이주와 한국농촌 총각의 결혼문제가 맞물려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러시아 등으로 더욱 다변화되었다.

이는 한국여성의 국내 농촌총각과의 결혼기피 현상으로 인해 국내에서 신부감 찾기에 실패한 한국남성들이 외국인 배우자를 찾는 경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 국가별 국제결혼건수(2001~2008)

(단위: 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결혼 총건수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한국남자+ 외국여자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중국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베트남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필리핀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일본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캄보디아	-	-	19	72	157	394	1,804	659
태국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몽골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우즈베키스탄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기타	1,004	969	1,218	1,252	1,136	1,236	1,359	1,354

출처: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2009. 12

2003년 7월 1일 한·중 양해각서 폐지로 한국이나 중국 어느 일방국가에서 혼인등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수가 날로 증가 하고 있다.

국제결혼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건수는 2002년 380건, 2005년 2,382건, 2007년 5,707건, 2008년 7,962건으로 2002년에 비

해 21배 증가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2008년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건수는 7,962건으로,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5,398건(67.8%), 베트남 1,078건(13.5%), 필리핀 268건(3,4%), 몽골 213건(2.7%), 일본 205건(2.6%)의 순이다. 이혼건수에서 중국인 아내의 비중이 큰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제결혼 누적 건수가 많기 때문이다.

<표 2>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건, %)

연도별 / 주제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2008	구성비	증감률
계	380	547	1,567	2,382	3,933	5,707	100.0	7,962	100.0	39.5
중국	180	274	835	1,425	2,538	3,654	64.0	5,398	67.8	47.7
베트남	7	28	147	289	610	895	15.7	1,078	13.5	20.4
필리핀	28	43	108	140	165	213	3.7	268	3.4	25.8
일본	78	89	114	116	147	157	2.8	205	2.6	30.6
몽골	10	6	83	116	132	173	3.0	213	2.7	23.1
우즈베키스탄	3	16	67	75	105	112	2.0	160	2.0	42.9
캄보디아	0	0	4	6	19	99	1.7	178	2.2	79.8
기타	74	91	209	215	217	404	7.1	462	5.8	14.4

출처: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2009. 12

이처럼 이혼건수가 많은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으나, 국제결혼이 무엇보다도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중개는 13.4% 이내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유사중개행위까지 포함 시, 실제로는 50%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 결혼당사자의 인권침해, 결혼 후 갈등, 국가이미지 실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모집과정에서 여성비하적 광고, 외국 현지에서의 대량 속성 결혼 중개로 자율적 배우자 결정권 침해 등 인권침해도 야기시키고 있고 결혼당사자간 사전정보 부족 및 상호이해 부족으로 결혼 후 부부갈등이 심화되므로 이혼건수 증가, 가정폭력, 사망사고로 비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캄보디아와의 국제결혼처럼 중개업자의 상업적 이익만을 위한 잘못된 결혼은 외국에서 한국인과의 결혼 중지 조치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기업의 해외진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과 더불어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건수는 이들의 부부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 원조방법을 탐구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하겠다.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는 경제적 어려움,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부부폭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 감소를 위하여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개업에 대한 법적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추후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와 부부관계에 적응함으로써 이혼을 예방하고 한국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를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현황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가족은 일반 한국가족에 비해 배우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 자매 등과 같이 동거하는 비율이 다소 높으며,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직업은 육체노동직과 자영업이

가장 많고, 농촌에 있는 경우에도 농어업 종사자는 1/4에 불과하고 절반 가까이는 육체노동에 종사한다. 그리고 한국인 남편이 사무직인 경우에는 외국인 아내의 26%가 취업을 하고 있으나, 한국인 남편이 자영업이거나 무직인 경우에는 그 아내의 40%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의 경제적인 지위가 낮을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이 더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로움”과 “문화차이”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문제”, “경제문제”, “언어문제”, “가족갈등”, “주위의 시선이나 태도 등을 의식하는 것”, “음식이나 기후” 등이 언급되었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에서 살펴본 문제점은 문화갈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빈곤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취약, 자녀양육 환경의 취약, 법적 신분 불안과 불이익,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은 부부 갈등과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부부 및 가족관계 증진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지지망의 확충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결혼이주센터" 등과 같은 조직기구의 구축 및 강화가 요구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적 접근이 필요하다.

2)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특성

결혼이주여성 실태 밑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문화갈등, 자녀양육 환경의 취약, 법적

신분 불안과 불이익,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이 이제 한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여성들 배우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이 요구되어진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특성요인을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들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인철, 2008; 최지명, 2007; 김나영, 2007; 최경숙, 2006; 한건수, 2006; 김연수, 2007).

(1) 경제적, 문화적 수준

결혼이주여성 배우자는 대부분 한국의 농촌으로 경제적, 문화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한 노총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온 다문화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이들의 본국 문화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이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성역할의 태도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가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부인보다 더 전통적으로 부부갈등이 많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결혼이주여성 보다 더욱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

(3) 역기능적 의사소통(비난형)

결혼이주여성 배우자가 특히,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성을 경험하지 못한 농촌 총각들의 경우, 결혼 자체만을 목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 문화적, 정서적 갈등양상이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의사소통이 결혼적응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여

러 연구들의 결과보고가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남성은 아내에게 대부분 비난형의 의사소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는 어떤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지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4) 문화적응의 태도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즉,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응태도와 자문화전달태도 모두 결혼적응이나 부부갈등, 그리고 부부간 의사소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이 자문화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결혼안정감이 좋게 인지되어 부부갈등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편이 다문화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를 모두 취하는 경우에는 부부 상호간 애정표현을 보다 많이 하며, 같이 생각과 시간을 보내는 부부 공유도가 높아,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의 부부일치도가 높게 나타나 부부갈등을 상호간 지지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문화적응태도가 부부갈등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의사소통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일반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생각과 감정 등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과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의사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며 효율적인 소통이 되도록 한다.

또한 의사소통이란 인간이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이며,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사실,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수용자 측의 의식이나 태도 또는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차배근, 1985).

이영실·이윤로(2008)은 언어를 포함한 신호, 동작, 표정 등의 상징을 매개로 하여 인간이 타인과 가지는 상호교섭 과정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중요한 방법이라고 언급하였고 송말희(1986)는 의사소통을 인간 및 사물에 관한 것을 언어와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제 삼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설기문(1997)는 의사소통의 개념을 인간이 인간 및 사물에 관한 모든 것을 언어와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제 삼자에게 전달하고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상호작용이며, 인간이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공통된 의미를 형성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가는 것이라고 하였고 유양옥(2006)은 의사소통이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정보와 이해가 전달되는 과정이다라고 했고 김소영(2003)은 의사소통이란 사람들 간의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며,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의 행동에 언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이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달,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언어적, 비언어적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2)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개념

Satir는 의사소통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치감정이 낮고, 의사소통은 간접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정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가족규칙은 경직되어 있고, 비인간적이고, 타협이 불가능하고, 영구적이다. 사회와의 관계는 두렵고 혼란하고 비난 적이다. Satir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과 의사소통의 언어적·비언어적 과정을 중요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주고받는 메시지의 일치성과 불 일치성을 강조하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하여 1972년에 “People Making"이란 저서를 출판하였는데 그 책에서는 주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회유(Placating), 비난(Blaming), 평가(Computing), 혼란(Distracting)의 개념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개념을 발전시켰다(Satir, 1972).

의사소통은 경제·사회적 계층이 어떠하던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정서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정신의료와 사회사업을 전공한 Virginia Satir는 행동이론보다도 현상학적 이론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Satir의 의사소통 이론은 자아심리학(Ego Psychology), 자기개념(Self-concept), 자기존중(Self-esteem)의 개념과 Jackson과 Haley의 기본개념을 기초로 하였다.

그녀는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 사람들은 의사소통할 때 몸짓, 표정, 움직임, 목소리, 억양, 옷차림 등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모든 의사소통은 시간, 장소, 대상, 환경 등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 때문에 복잡해진다. 수신자는 송신자가 보내는 메시지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의사소통은 두개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하나는 표현되는 수준(The Denotative Level) 즉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메타커뮤니케이션 수준(Metacommunication Level)이다. 이것은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격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의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다. 메타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이다.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메시지에 대한 송신자의 태도도 함께 전달된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림, 얼굴을 찡그림, 미소, 굳은 표정, 의기소침 등의 비언어적 메타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할 수 있다. 의사소통하는 상황 역시 그 자체가 하나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다. 사실상 메타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의사소통은 있을 수 없다. 침묵 역시 의사소통 방법 중의 하나인데 침묵은 수신자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침묵 자체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도 또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인 것이다.

Satir는 의사소통의 일치성과 불일치성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불일치성은 메시지의 보고와 지시 사이의 모순을 말한다. 일치된 의사소통은 두개 이상의 메시지가 다른 수준에서 전달되지만 메시지들이 서로 모순된 것은 없다. 단순히 상반되는 의사소통은 두개 이상의 대립되는 메시지가 같은 의사소통 수준에서 전달되는 것이다.

불일치한 의사소통은 수신자의 비언어적 메타커뮤니케이션과 언어적

메타커뮤니케이션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일치가 심화된다. 불일치성은 메시지가 불명확하고 메타커뮤니케이션 수준들 사이의 부조화를 의미한다. 불일치성은 메시지를 보고하고 명령하는 사이의 부조화나 모순성을 의미한다. 그녀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메시지의 불일치성이 역기능을 발생케 한다고 믿는다. 사실상 불일치성은 메시지의 의사소통과 메타커뮤니케이션 측면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Satir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사람들의 네 가지 방법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네 가지 유형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에만 일어났고 동시에 그의 자존심이 '걸려있다'고 느낄 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Satir는 네 가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반응들은 자신의 전체를 숨기는 방법이거나 자신의 부분들을 숨기는 것으로 보았으며 감정을 숨김으로써 상처입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믿었다(Satir, 1972). 대체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없거나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오랫동안 심하게 상처를 입었거나 무시당해 온 경향이 있다.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다시 상처 입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하는 사람은 낮은 자기존중감정을 반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한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기존중감정이 낮은 개인은 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낮은 자기존중감정은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분화시키고 성장 발달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성숙을 방해한다. 만일 부모가 의사소통의 모델이 되기에는 부족할 경우 그들은 자녀에게 효율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자녀들은 자기존중감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 만일 부부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한다면 자기존중감정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한다.

Satir는 사람이 그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고하고 감사하는 느낌을 갖지 못할 때 자존심이 쉽사리 상하게 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 자신의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과의 행동과 반응을 보고 자신을 규정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푸르다고 말했다면, 그는 확인해 보지도 않고 동의하고 다른 사람이 코멘트를 맞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남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는 푸른 것이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

Satir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 개념들은 첫째, 수평형으로 개념화한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둘째, 회유형(Placating), 비난형(Blaming), 평가형(Computing), 혼란형(Distracting)으로 개념화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다(Satir, 1972). 특히,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사람들이 거부 또는 심판 받는다고 느끼거나 약점이 노출될 때, 개인의 자기존중감정이 흔들리고 약해졌을 때 발생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개념은 Satir가 개발한 것으로,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의 유형이 있다. 이 네 가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개념적 정의로 내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유형 의사소통

회유형 의사소통(placating communication)을 사용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건 상관없이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고 사과하고 결코 반대하지 않으며 언제나 상대방에게 비위를 맞추면서 말한다. 회유형은 스스로를 참으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있으며, 잘못되는 일은 모두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며 당연하게 회유자 자신에 관한 어떤 비판에도 동의할 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자

신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사실만을 고마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유형은 자신이 먼저 무엇을 청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며 회유하는 자세도 회유하는 반응에 어울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atir, 1972).

Satir는 또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회유자의 특징을 첫째, 말은 동의('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좋다. 나는 오로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뿐이다')하며 둘째, 몸은 회유한다('나는 속수무책이다')이며 셋째, 내면적으로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가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없다' 등과 같이 자신은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곁에 누가 없는 경우, 죽은 목숨과 같다고 느끼며 회유반응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며 죄책감을 갖는 것이 자신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회유반응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욕구를 숨긴다고 한다(Satir, 197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유형의 개념을 변명하고, 아부를 하며, 다른 사람의 찬성을 받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며, 무조건 동의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희생적이며, 다른 사람을 화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비난형 의사소통

Satir는 비난형 의사소통(blaming communication)에서 비난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내면적으로는 외롭고 비성공적인 감정이 있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난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명령적이고 지시적이다.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참을성이 없으며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며, 강자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남의 말을 무시하며, 자신이 상관이라고 생각한다(Satir, 1972).

Satir는 비난자는 결점 발견자이고 독재자이며 우두머리이며 그는 높은 사람으로 행동하며 '당신만 아니었더라면 모든 일이 잘 되었을 것인데'라고도 말하는 것 같이 보인다. 내적인 감각은 근육과 내장기관들이 긴장하는 그런 것이다. 한편 혈압은 올라가고 있다. 목소리는 딱딱하고 긴장해 있고 때로는 날카롭고 크다. 비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소리를 크게 내고 포악하게 해야한다. 모든 것, 모든 사람을 깎아 내려야 한다. 의사소통에서 비난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내면적으로는 외롭고 비성공적인 감정이 있다. 비난은 상대방을 두렵게 하고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것은 비난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난행위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숨기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는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부정적인 언어사용 즉, 비난형 의사소통이 부부간의 불일치나 긴장감을 조성하며 부부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영실 1989, 이미영·박혜인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난형의 개념을 자기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명령적이고 지시적이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참을성이 없으며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며, 강자같이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남의 말을 무시하며, 자신이 상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평가형 의사소통

Satir는 평가형 의사소통(computing communication)의 개념은 내면적으로 약해서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사용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했다. 평가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시기심을 갖게 하

고 상대방이 시기할 경우 평가하는 사람과 한편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자신의 정서적 감정을 숨긴다(Satir, 1972).

Satir는 모든 일을 비판하고 분석하며 평가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잘 따지며, 비판적이며 비난적이고,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평가자는 합리적이며, 지나치게 이치에 맞게 평가하고, 조용하고 냉정하고 침착하다. 평가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멀리하면서 주제에 대해 완전히 중립을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한다.

평가자는 어떤 감정도 나타내는 법 없이 매우 정확하고 이성적이다. 그는 조용하고 냉정하며 차분하다. 그는 실제의 컴퓨터나 사전에 비교될 수도 있다. 몸은 건조하게 느끼며 때로는 차갑고, 분해된 것처럼 느껴진다. 목소리도 건조한 단음이며 말들은 추상적이기 쉽다. 평가자는 내면적으로 약해서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설명한다(Satir, 197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형의 개념을 모든 일을 비판하고 분석하며 평가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잘 따지며, 비판적이며, 비난적이고,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며, 합리적이며, 지나치게 이치에 맞게 평가하고, 조용하고, 냉정하고, 침착하다고 보았다. 평가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멀리하면서 주제에 대해 완전히 중립을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혼란형 의사소통

Satir는 혼란형 의사소통(distracting communication) 유형을 사용하

는 사람은 내면적으로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현재 있는 곳이 자기가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혼란한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며 비합리적이며, 잘 모르면서 말한다. 주제를 자주 바꾸고 책임없는 말을 하며 산만하다. 못 듣고 못 본 척 딴전을 피운다. 다른 사람의 질문을 무시하고, 입, 신체, 팔, 다리를 계속 움직인다. 질문의 핵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행위를 한다. 그리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혼란한 반응은 상대방이 농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농담하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의 산만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자신과 주위사람들의 욕구를 무시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유, 비난, 평가, 혼란한 의사소통 유형 가운데 어느 것이나 다 사용할 수 있다. 두통, 요통, 저혈압, 소화기능 장애 등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결과로써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은 내면적인 경험을 솔직히 표현 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위협을 받는지 혹은 위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을 속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때론 그들의 노력이 잘못 이해됐다고 느끼거나 타인으로부터 배반당했다고 느끼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네 가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 반응들은 자신의 전체를 숨기는 방법이거나 자신의 부분들을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을 숨김으로써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기제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Satir가 의사소통의 네 가지 유형에서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중 메시지(double bind message)이다. 네 가지 유형 모두에 있어

서 상대방의 목소리는 이것을 말하는데 상대방의 몸의 나머지는 다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이중 메시지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역시 그 결과는 종종 해롭고 불만스럽게 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스트레스(stress)가 있고 자존감이 상했다고 느끼고 자기가치에 손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 즉 이중메시지의 형태이다.

문제가족에는 대부분이 이중메시지 전달이 있었으며, 가족원 중 어느 하나도 이중 메시지를 지적하거나 문제시하는 사람이 없다. 이중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감정이 담겨있는데, 자존감이 낮으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고, 남의 감정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타인의 보복을 걱정하고,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사람과 관계 맺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숨기면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잠재적으로는 소속하고 수용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면서도 생존 유형은 이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숨기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Satir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이론 즉, 비난형, 평가형, 회유형, 혼란형의 네 가지 유형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3. 부부갈등

1) 부부갈등의 개념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견해나 주장, 이해 등이 뒤엉킨 복잡한 관계 혹은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충돌하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상태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부부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현경자, 2005)

부부갈등은 크게 갈등이론적 입장, 기능주의적 입장, 가족관계적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갈등이론적 입장을 언급한 Collins(1975), Spray(1979), 홍원표(1993) 등은 사회적 관계에서 생산수단 소유권의 대립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제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시이론으로 시작하여, 결론적으로 결혼과 가족의 제반 현상을 설명하는 중범위이론을 주장한다(김오남, 2006: 9 재인용). 갈등이론을 가족에 처음 접목시킨 Sprey(1971)는 부부갈등을 희소자원, 경쟁적 수단, 양립불가능한 목적 또는 이러한 것들이 결합한 것에 대한 개인, 집단 간의 적대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김오남(2006)은 갈등이론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부갈등은 이익이 상충되는 부부가 서로 각각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쟁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Spray(1979)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을 설명하고, 가족의 안정 및 불안정이 어떻게 기인되는지, 어떤 조건하에서 개인간의 유대가 균형이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부갈등에 대한 기능주의적 입장을 주장하는 김재경(1991), Coser(1964), 김양희(1993) 등은 갈등을 제도화된 사회조직의 생동성과 융통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며, 사회체계의 계속적인 적응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갈등이론적 입장 및 기능주의적 입장과 달리, 가족관계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부갈등은 부부 간 심리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개인의 심리상태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내적 욕구충돌이라는 설명을 대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확대한 것이다(김오남, 2006: 10. 재인용)

Coleman(1984)은 부부갈등을 '부부간에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정의 하였고 Fincham(2003, 재인용)은 언어적,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개인적 특성과 행동에 이르는 갈등 원천에 대한 불평이라고 하였다(김오남, 2006). Gottman(1994, 재인용)은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함께 공존하지만, 결혼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며 이러한 부정적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것이 부부갈등이라고 하였다. 또한 Koerner Jacobson(1994)도 부부 상호관계에서의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부부갈등을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개념으로 정의한 Walters, J. & Stinnett, N.(1977)는 부부갈등은 불가피하며 갈등을 경험하는 부부의 경우 더 친밀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격렬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부부 간 긴장을 유발하며 신체적 부적응 등을 유발한다고 한다. 그리고 부정적 측면에서의 부부갈등은 부부간 신뢰와 애정이 감소되며 결혼생활 만족도를 낮추게 함으로써 이혼이나 가정의 해체까지고 가져 올 수가 있다고 본다(Gottman, 1994). 그리고 Fincham(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문제보다 부부갈등, 특히 정신적, 언어적 공격 등을 포함한 폭력은 결혼

관계를 해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부부갈등을 연구한 이영실(1989), 길미령(1990), 김영자(1992), 이미영·박혜인(1995), 최선희·전명희(1999) 등은 이러한 부부관계적 갈등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민식과 오경자(2000)는 부부갈등을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했으며 박영란과 이영숙(2005)는 '부부가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겪는 긴장된 상호작용'이라고 하여, 주로 부부간의 불일치나 긴장에 초점으로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부부갈등의 제요인 즉, 개인적 갈등영역, 부부관계적 갈등영역, 공동생활 갈등영역, 제 삼자 갈등영역을 부부갈등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2) 부부갈등 제 요인

부부갈등의 제 요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접근방식이 다양하다. 부부갈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이 부부갈등 영역으로 설정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다른 견해나 주장을 보이나 다양한 부부갈등 영역의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틀을 찾아 볼 수 있다.

국내연구들의 부부갈등영역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영실(1989)은 부부갈등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부부의 대인관계요인, 자녀관계요인, 시댁관계요인, 성격요인, 사회문화배경요인, 건강요인, 부인의 사회적 활동요인, 남편의 사회적 활동요인, 부부간 의사소통요인 등으로 구분했으며 이러한 부부갈등요인 중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갑숙(1991)은 부부갈등 요인구조를 성격문제, 성문제, 자녀문제, 의사소통문제, 시가문제, 배우자 부정문제, 경제문제 등의 요인으로 구분했으며, 김영자(1992)는 부부갈등을 재정요인, 성격요인, 부모 및 형제요인, 자녀요인, 의사소통요인, 가치관 및 생활양식요인, 직업 및 사회적 활동요인, 애정 및 성적요인, 건강요인, 가사관리요인 등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부부갈등 연구를 한 이미영·박혜인(1995)은 갈등내용으로 가치관문제, 성격문제, 의사소통문제, 친족관계문제, 자녀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부부갈등을 좀 더 세분화한 전명희(1999)는 갈등영역으로 금전관리(재정문제), 사랑 혹은 애정문제, 성생활문제, 가사일 분담, 남편 또는 부인으로서 역할에 대한 기대, 중요한 일의 결정, 함께 보낸 시간의 양, 여가활동(혹은 취미), 습관, 관심사(혹은 대화주제), 종교문제, 자녀양육(교육방식, 장래계획), 배우자 친척과의 관계, 가치관·인생관 등 16가지로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부부갈등의 제 요인 영역을 개인 내적 갈등 요인, 개인 외적 갈등 요인, 사회 환경 및 문화적 요인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혹은 개인 내면적 갈등요인, 수직적 갈등 요인, 수평적 갈등 요인, 사회 환경 및 문화적 갈등 요인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부부갈등에 대한 이경희(1998), 조유리·김선경(2000), 이선미·전귀연(2001), 이영자·장경애(2002), 김오남(2006), 김영희·정선경(2007), 양영숙(2008) 등 최근 국내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부부갈등을 개인적 갈등영역, 부부관계적 갈등영역, 공동생활 갈등영역, 제 삼자 갈등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여러 연구들에 나온 개인적 갈등영역, 부부관계적 갈등영역, 공동생활 갈등영역, 제 삼자 갈등영역을 조사도구

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갈등영역

개인적 갈등영역이란 각 배우자 개인성격, 생활습관, 사고방식,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발생한 부부갈등 영역을 의미한다. 개인적 갈등영역에서는 부부갈등과 건강과의 관련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부부갈등은 협동, 동료애, 종교간 일치와 같은 부부 상호작용보다 배우자의 안녕과 건강에 더 관련되었다. Patterson(2004)의 연구에서도 미국내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아시아와 Caribbean 여성들에게 건강이 부부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고한 바 부부갈등감소에 건강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김오남, 2006).

Levin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 개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한 자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부부관계 갈등영역

부부관계적 갈등영역이란 부부간 의사소통, 애정, 성, 배우자 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부갈등 영역을 의미한다. 부부관계 갈등영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실, 1989; 송말희, 1990; 윤성숙, 1996; 최선희·전명희, 1999). 그리고 부인이 남편에 비해 의사소통에 더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숙, 1991; 김영자, 1992; 이미영·박혜인, 1995; 최선희·전명희, 1999).

또한 배우자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부부간의 역할 불일치,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 부부간 성격차이 등을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 및 가족해체까지 야기시킨다는 이영실(1989),

김계행(1991), 김정옥(1993), 김명자·권오실(1996), 김효현(1996), 최선희·전명희(1999), 노은여·권정혜(1997), 조유리(2000) 등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3) 공동생활 갈등영역

공동생활 갈등영역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주거, 주택계획, 금전관리, 소비, 여가생활, 가사노동분담의 불일치 등으로 발생한 부부갈등 영역을 의미한다. 공동생활 갈등영역의 연구결과를 보면, 부부갈등 영역을 의미한다.

공동생활 갈등영역에서 연구결과를 보면, 부부모두 경제력 갈등의 영향력도 높게 나왔다. 특히, 경제적인 재원이 부부 중 한 사람에 의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 오게 되면 부부관계의 해체 및 이혼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김혜경, 1987; 김재경, 1991; 김영자, 1992; 권오실, 1995; 이영자·장경애, 2002).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도 경제적 요인이 부인에게 있어서 부부관계 내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이영자, 2002). 최근의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경제력과 여성의 성적교환을 통한 거래로서, 즉 상호간의 제한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한국남성이 결혼과정에 드는 모든 경제적 비용을 감당한다. 또한 결혼 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에 경제적 원조를 하리라는 합의가 공공연히 또는 암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혼방식은 남성에게 자신이 구매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가능성을 높이며, 부부관계의 권력이 전적으로 남성에게 주어지는 불평등을 전제로 결혼생활이 시작됨을 의미한다(양성은, 2005).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열악하고 약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부부간의 역할기대 및 가사일 분담과 같은 성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 빈번한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 차이는 결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갈등요인이라고 강조되고 있다(강인, 2000; 김명자·권오실, 1996; 양명숙, 1996). 부부의 성역할 태도도 부부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아내구타나 가정폭력은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 즉 남편지배형의 성역할태도를 지닌 남편의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재엽·이서원, 1997; 여성부, 2007)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분담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서양이나 우리나라에서 모두 부부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자주 보고되고 있다(최선희·전명희, 1999; 이주희, 2000; Fincham, 2003; 현경자, 2005).

(4) 제 삼자 갈등영역

제 삼자 갈등영역이란 부부 두 사람 이외의 관계들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자녀양육, 교육, 친인척, 직장이나 사회활동 등에 기인하는 부부갈등 영역을 뜻한다. 제 삼자 갈등영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부부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이혼 및 가정의 붕괴로 이어진다(Ataca & Berry, 2002; Kurdek, 1995).

특히,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내 쪽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부간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갈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Ataca & Berry, 2002; Lavee, Sharlin & Katz, 1996; Perel, 2000; 김영자, 1992; 최선희·전명희, 1999; 최규련, 2001).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갈등은 문화적 차이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즉, 훈육에 대한 부부간 문화적 배경차이

와 부부 각자 어렸을 때의 양육경험 차이, 부부 각자의 가치와 믿음에 대한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연구 보고되었다 (Parel, 2000; 이규삼, 2000; 박형식, 2006; 김오남, 2006).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사회적 지지도가 제 삼자영역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다양한 부부갈등 영역에서 영향을 준다. Oliker(1989)는 친밀한 친구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과 결혼의 질에 대한 부인의 정서상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결혼에 대한 안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Rubin(1985)도 부인은 남편보다 친구에게 정서적 표현과 지지를 표현하며 친구와의 우정이 결혼에서 긴장을 야기하지 않고 친구로부터 받은 지지 때문에 결혼이 유지된다고 하였다(김오남, 2006). 아울러 친밀한 친구에게 부부갈등을 노출하는 경우 부부갈등시 행복한 결혼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가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고있다(이영자, 2002). 즉 여성의 친밀한 친구와의 관계는 결혼의 제한점을 수용하도록 하며 결혼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의 원천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문화에 온 이주여성은 배우자, 부모, 친척과 정신건강전문가 등 상호독립적인 지지체계에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nitz와 Brown(2001)의 연구에서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지지는 결혼의 안정성과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정성을 더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였고 갈등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친밀한 가족관계는 부부에게 긴장에 대한 제 삼자의 지지적 원천으로서 보아진다고 하였다(김오남, 200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갈등의 제 요인에 대한 연구내용들을 정

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부부갈등의 제 요인 연구들

연구자	부부갈등의 요인
이영실 1989	경제적 요인, 부부의 대인관계요인, 자녀관계요인, 시댁관계요인, 성격요인, 사회문화배경요인, 건강요인, 부인의 사회적 활동요인, 남편의 사회적 활동요인, 부부간 의사소통요인
김갑숙 1991	성격문제, 성문제, 자녀문제, 의사소통문제, 시가문제, 배우자 부정문제, 경제문제
김영자 1992	재정요인, 성격요인, 부모 및 형제요인, 자녀요인, 의사소통요인, 가치관 및 생활양식요인, 직업 및 사회적 활동요인, 애정 및 성적요인, 건강요인, 가사관리요인
이미영·박혜인 1995	가치관문제, 성격문제, 의사소통문제, 친족관계문제, 자녀문제
최선희·전명희 1995	금전관리(재정문제), 사랑 혹은 애정문제, 성생활문제, 가사일 분담, 남편 또는 부인으로서 역할에 대한 기대, 중요한 일의 결정, 함께 보낸 시간의 양, 여가활동(혹은 취미), 습관, 관심사(혹은 대화주제), 종교문제, 자녀양육(교육방식, 장래계획), 배우자 친적과의 관계, 가치관·인생관
이경희 1998; 이선미·전귀연 2001; 이영자·장경애 2001; 조유리, 2000	개인적 갈등영역: 각 배우자 개인성격, 생활습관, 사고방식, 성격 등 갈등
	부부관계적 갈등영역: 부부간 의사소통, 애정, 성, 배우자부정
	공동생활 갈등영역: 주거, 주택계획, 금전관리, 소비, 여가생활, 가사노동분담 등 갈등
	제 삼자 갈등영역: 자녀훈육, 교육, 친인척, 직장이나 사회활동, 종교활동 등 갈등

4.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접근 개념에 따라 적응자원, 사회적 관계망, 사회·심리적 자원 혹은 사회적 지원체계 등의 용어로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연구자들마다 개념 및 조작적 정의와 평가 방법이 다양하다.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어 왔다. 구조적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 관계 구조의 객관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한 개인이 어떤 사람과 얼마나 많은 대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측면이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 가족이 몇 명인가 등을 사회적 지지의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또 다른 측면은 기능적 측면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맺고 있는 실제적인 대인 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해서 이것을 사회적 지지의 측정치로 허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의논할 친구가 있는가를 물음으로써 그 관계의 질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해 온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단일차원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다차원적인 구성체로 인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이창주, 2007).

Cobb(1976)은 사회적 지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제공되는 모든 물질적·심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며 넓게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지를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긍지를 갖도록 하여 의사소통과 책임을 갖는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 가능성으로 정의했다(문승완, 2008).

Kaplan(1977)은 애정, 승인, 소속 및 안정에 대한 개인의 욕구가 의미있는 사람에 의해 충족되는 것으로서 이는 위기시 자아의 기능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Kahn & Antonucci(1980)는 사회적 지지를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한 대인간 교류라고 하였다. 그리고 Dean과 Lin(1977)은 사회적 지지를 타인,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지지라고 하였고, Hirsh(1980)는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관계의 틀 즉, '관계망'으로 설명하였다(문승완, 2008). 그리고 Cohen 등(1983)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으로 정의하여 지지적인 행동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검토한 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지의 4가지로 사회적 지지 유형을 나누었다. 여기에서 정서적 지지란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어 그 자신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행위이고,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나 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평가적 지지는 개인에게 역할 수행과 행위에 관한 구체적 평가 정보를 전달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도구적 지지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도와주는 행위라고 하였다.

박지원(1985)는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적

속성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지 정도와,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정도를 반영해주는 자신의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 정도를 말 한다고 하였다. 사회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어떠한 관계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지 및 지원자가 달라지게되고 사회적 지지를 누구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도 달리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여 지지적 행위의 속성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정서적 지지로 존경, 애정, 관심, 신뢰의 행위를 포함하고

둘째,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 등을 말하며

셋째, 평가적 지지는 칭찬, 소질 인정, 인격 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고양, 의사존중 등의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지지이며

넷째, 물질적 지지는 필요시에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으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한다.

Barrera(1986)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화에 있어서 여러 연구들을 토대로 세가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환경 내에서 유의미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연계나 관계 등을 나타내는 사회적 유대, 환경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지지의 유무 또는 지지에 대한 만족감으로 측정되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서의 지각된 지지, 지지적 접촉 등과 같은 실제 지지행동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위의 세 가지 개념들이 한 개인의 적응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Gottlieb, 1983; Heller & Swindle, 1983)을 근거로 이 개념들 간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

을 강조하였고, 이들을 분리된 개념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에서 이원숙(1992)은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기본적 욕구충족, 지지적 행동, 기능적, 구조적 특성 등의 네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그중에서 지지적인 행동을 사회적 지지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여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도움(사랑, 돌봄, 이해, 격려, 긍정, 신뢰, 관심 등의 태도 및 행동), 정보적 도움(사건해결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제공 행위를 포함), 물질적 도움(금전, 시간, 생활용품, 음식 등 제공)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김이례(2003)는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으로서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작용하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배경희(2007)는 사회적 지지를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 하였는데, 첫째 수준으로는 핵가족의 구성원과 가족처럼 친근한 친구, 친척 또는 친지 등의 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수준의 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지속적이며 필요시에는 즉각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근원들이라고 하였다. 둘째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첫째보다 덜 가까운 친구, 친척 또는 전문인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 등 정기적 접촉을 갖는 사람을 포함하고, 셋째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덜 가까운 사이이면서 자주 접촉하지 않는 사회적 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지라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는 개인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주로 사회적 관계망에 들어 있는 부모, 형제, 자매, 교사, 또래 등을 들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의 근원으로 가족 구성원, 직장동료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Harter(1985) 도 역시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동료, 상담

자, 의사 등을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원천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를 다룬 연구들은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과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능적 측면을 측정했을 경우는 스트레스 사건이 있을 때에만 사회적 지원이 작용한다는 입장인 완충효과가설(buffering effect hypothesis)이 더 잘 지지된 반면, 구조적 측면을 측정했을 경우에는 스트레스 사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작용한다는 입장인 주효과 가설(main effect hypothesis)이 주로 지지되었다(이창주, 2007). 이는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연구자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제공원	Harter(1985)	형제, 자매, 교사, 또래
	Cobb(1976)	가족 구성원, 직장동료
	Wortman(1987)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동료, 상담자. 의사.
구조적 측면	Toseland 등(1990)	공적지지, 사적지지.
	Bristol(1987)	공식적 지원, 비공식적 지원.
	Shilling(1984)	가족 친구 친척 지지, 전문가 지지, 사회적 기관으로부터의 지지.
기능적 측면	Cobb(1984)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박지원(1985)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심경순(2001)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예우적 지지.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변인인 하위영역을 제공원(Harter, 1985; Cobb, 1976; Wortman, 1987), 구조적 측면(Toseland 등, 1990; Bristol, 1987; Shilling, 1984), 그리고 기능적 측면(Cobb, 1984; 박지

원, 1985; 심경순, 2001)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표 4>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지지, 정보, 피드백 등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는 범위이며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구성요소로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로 나누어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족되는 정도로 정의하였는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등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다각적인 사회적 지지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사회적 지지 유형 즉,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정보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의 유형 및 효과

(1) 사회적 지지의 유형

오늘날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서부터 부부갈등 및 가족해체, 알코올 및 약물남용, 이혼, 사별, 노인성 치매, 암, 우울증, 그리고 죽음 등에 이르기까지 부부 및 가족,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은 특히, 부부갈등이나 역기능적 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배경희, 2007).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Kaplan(1974)은 개인의 기본적 사회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서, 동정, 이해, 수용 및 존중과 같은 사회 정서적 도움과 충고, 정보제공, 가족의 도움, 혹은 업무책임, 재정적 원조와 같은 실제적 지지, 그리고 인식체계에 도움이

되는 심리적 형태의 인정 혹은 정보적 지지, 또 기본적인 사회정서 요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의 정서적 지지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공감을 통하여 정서표출을 도와주고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해주는 정보적지지,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해 주는 도구적, 물질적 지지,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자존감지지 등으로 분류하였고, Shaefer, Coyne, Lazarus(1981)은 유형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3형태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지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개발한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 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정서적 지지는 자신이 사랑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적 측면을 말한다. 이는 존경이나 애정, 신뢰, 관심, 경청 등의 행위를 통해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이 지지망의 구성원들과 서로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평가적 지지는 개인의 결점이나 잘못된 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개인을 인정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중심인물의 자긍심 고양과 관계되는 지지의 유형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평가적 지지는 수용, 긍정적 환류, 긍정적 자기평가 등의 지지를 의미한다.

셋째,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어떠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이용할 수 있

는 정보 제공을 통해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충고나 조언 등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하며 대처하는 것을 도와주는 활동을 통한 지지이다.

넷째, 물질적 지지는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물질적으로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 등을 제공하는 등의 직접적 지지를 말한다.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기초로 하여 이소래(1997)는 사회적 지지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김나영(2007)은 이소래(1997) 척도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다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처럼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사회적 지지 유형 중에서 박지원(1985), 이소래(1997), 김나영(2007)에서 사용된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정보적 지지를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변수들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변수들이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에 어떤 상관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의 효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지지를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스트레스 사건의 대처와 관련시킨 연구(Cohen& Wills, 1985)이고, 둘째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특성과 관련시킨 연구(Rollins & Thomas, 1979)이며, 셋째는 보다 최근에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된 연구이다.

①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 : 사회적 지지와 적응

많은 연구들이 배우자나 친구, 가족 구성원이 심리적, 물리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Henderson(1980)은 정신질환자는 보통사람에 비해 정서적 지지가 결여되고 있음을 보고했고, 그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결핍이 신경증적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Turner와 Primavera(1982)는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자기개념이 긍정적이고 학업성취가 높았으며, 학교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또래 관계에 대한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또래 지지를 적게 받은 청소년은 또래지원을 많이 받은 청소년들보다 학업성적이 낮고 학교 결석이 잦았다.

사회적 지지가 자기 존중감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증거는 Kaplan 등 (1983)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가족과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한 7학년 아동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지지를 박탈당한 경험은 이 후 10년 동안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을 예언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키며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Harter(1986)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적응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Cohen & Wils(1985)가 제시한 완충효과모델(buffering effect hypothesis)과 주효과 모델(main effect hypothesis)이다. 주효과 모델

은 개인이 가진 스트레스 요인의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긍정적 정서, 개인의 생활 상황에서 예측성과 안정감,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응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완충효과 모델은 스트레스가 적은 상항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고 낮음에 따라 적응 수준에 차이가 없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를 연구하는 또 하나의 관점은 사회적 지지를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송종용(1988)은 개인에게 객관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과 그가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외부에서 지지가 주어진다 하더라고 그것을 지지로 지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진정한 지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고하여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있어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Wethington & Kessler(1986)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제공 받은 사회적 지지보다 적응을 예언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보고 하였다.

② 사회적 지지와 개인의 특성

Sarason 등(1990)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친밀한 관계에서 초기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고 주장했다. 즉, 부모와의 초기 관계가 긍정적일 때, 아이들은 자신이 지지받고 있으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Sarason 등(1990)은 이를 수용감(acceptance)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용감은 아동들이 환경에서 타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중요한 타인들과의 초기관계가 이후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Safason 등(1986)은 사회적 지지는 외향성과 정적인 상관을, 신경증 및 우울, 적대감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Jones(1984)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고독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Gottlieb(1985)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사건을 외부로 귀인하며, 긍정적 사건을 내부로 귀인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정보를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지지와 관련된 행동들을 더욱 잘 기억했으며 이러한 기억이 정서적 안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Ross, Lutz와 Lakey(1999)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실패한 지지(제공되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은 지지)를 일시적인 것이며 그 상황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것으로 귀인한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③ 사회적 지지의 부정적 효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지지와 적응 간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와 적응 간에 부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Nadler, Alman과 Fisher(1979)는 도움의 수혜가 수혜자의 자기 지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도움의 수혜가 제공된 지지를 수혜자의 상대적인 의존성이나 열등감 또는 무능력함을 암시하는 것이라 지각한다면, 수혜자의 자기(self)에 위협을 가하게 되어 수혜자에게 부정적인 결

과를 가져오는 반면, 도움의 수혜가 제공자의 관심과 보호를 암시하는 것이라면 수혜자의 자기를 지지하게 되어 수혜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자존감위협모델(threat-to-esteem)에 근거하고 있다. 자존감위협모델은 지지 또는 도움은 자기위협(self-threat)적인 요소와 자기 지지(self-support)적인 요소의 혼합물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자기 위협과 자기 지지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도움에 대한 수혜자의 반응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기 지지적인 것으로 지각된 도움은 수혜자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반면에 자기 위협으로 지각된 도움은 수혜자의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 낸다고 주장한다.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가족의 과잉 지지와 부족한 지지 모두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주고 있다. Delongis와 Coyne(1986)는 가족 구성원의 과잉지지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가족 구성원의 과잉지지가 수혜자의 문제해결이나 과제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정서적으로 깊이 관련된 가족은 도움을 제공하는 데에 과도한 초점이 주어져서 자신의 도움을 수혜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때 수혜자는 분노, 죄책감, 자율성 결여 또는 강제성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가족 구성원의 과잉 관여가 수혜자의 자기를 위협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움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에 축적된 문제를 생기게 하여, 결국 이러한 축적된 문제는 계속해서 수혜자가 제공자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임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이론 중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가 얼마만큼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5. 선행연구고찰

1)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

본 연구는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의 관계성에 관한 선행연구로,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Bienvenu(1970)는 부부간 의사소통을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거나 상대방의 견해에서 문제 혹은 차이점을 발견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느낌과 의미를 상호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그는 의사소통을 언어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 얼굴표정, 행동과 그 외 사람들이 의미를 주고받을 때 이용하는 비언어적인 단서도 포함하였다. 즉, 부부의사소통이란, 느낌, 신념,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고 남편과 아내가 남성과 여성의 관점에서 서로의 문제와 차이를 지각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느낌과 의미를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Canary와 Spitzberg(1989)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부부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가지게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했다. 이들은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를 제작하였고 의사소통 패턴

을 3가지(상호건설적 패턴, 상호회피 패턴, 요구-철회 패턴)로 나누었는데, 그 연구결과, 의사소통 패턴중 상호회피 및 요구-철회 패턴(demand-with draw pattern)이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으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상호회피 패턴이란 배우자 모두 갈등 영역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요구-철회 패턴이란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평하거나 변화를 추구하는 대화를 시도하는 반면 상대편 배우자는 대화를 끝내려고 한다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며 침묵을 지키거나 대화 장소를 떠남으로써 대화를 회피하려는 방식을 말한다.

Pearson과 Spitzber(1993)는 요구-철회 패턴이라고 명명한 특정 의사소통 패턴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보고하고 있고,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패턴이며 결혼의 질과 결과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이 패턴 중에서도 주로 아내요구-남편 철회하는 현상을 보고 그 이유를 밝히려고 노력해 왔다. 이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반복 검증되었고, 이와 비슷한 유형이 결혼관계에 있어서 역기능적이고 결혼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들의 특정 패턴이라고 보고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국내에서 부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박대혁(2009), 김성숙(2008), 김삼열(2006),이화연(2005), 정보인(2005), 최영실(2005), 윤형숙(2004), 김소영(2003), 전영주(2003), 맹주선(2002), 이두영(2001), 정희원(2000), 김상출(2000), 홍기혜(2000), 이영실(1989), 박경자(1981), 송성자(1985), 왕석순(1988) 등이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요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부부 의사소통 양식과 우울 및 자아감과의 관계, 부부 의사소통 양식과 특징적 갈등 대처 방식과의 관계, 개인특성과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의 관계,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 및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의사소통 방식과

부부 폭력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박대혁(2009)는 부부갈등 이해와 그 해결을 위한 목회적 적용 연구에서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대화를 원만히 할 것을 주장했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부부 상호간 일곱 가지의 대화기술을 제안하였고, 김성숙(2008)은 가족치료와 부부성장을 위한 사티어의 모형 연구에서 부부성장을 위해서는 부부갈등을 줄이고 부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그리고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Satir의 의사소통 모형을 제안했다.

김삼열(2006)은 기독교 가정의 부부갈등회복을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에서 부부갈등회복을 위해서는 부부 상호간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부부갈등의 원인은 자기이해의 부재, 의사소통의 미숙, 여성과 남성의 차이, 성장 배경의 차이라고 했으며, 이 중 의사소통의 미숙이 부부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부부의사소통 회복을 위한 목회상담적 과정 및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회복사례와 실패사례를 제시하였다.

정보인(2005)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 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과 의사소통과의 관계가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부부갈등대처방안 중 의사소통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화연(2005)은 부부갈등 극복과 이혼위기 극복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갈등과 의사소통과의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해 부부갈등 상황극복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안하였다.

윤형숙(2004)의 연구결과를 보면, 이주 여성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한국인 여성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알아서 행동해야 하는 것'을 외국인 아내와 며느리에게서도 기대하고 있다. 즉, 말을 안 해도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전통유교 문화'에 익숙한 남편은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할 능력도 태도도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대방 나라의 언어 및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에 있어서 아내의 노력은 당연시 되는 반면, 한국인 남편의 노력은 매우 미약하다거나 전무하다. 이러한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태도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부갈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전영주(2003)는 부부갈등해소를 위한 부부미술치료 사례에서 부부갈등의 원인으로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부부갈등해소를 위한 방법에서 부부간 의사소통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부부간의 의사소통 척도를 제시하였고 맹주선(2002)은 부부갈등에 대한 의사소통이론을 통한 목회상담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갈등과 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과 의사소통이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고 부부갈등에 대한 목회 상담적 접근에서 의사소통의 효과적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이두영(2001)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기독교적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대화의 양과 부부갈등 및 부부대화의 질과 부부갈등이 무엇인지를 제안했고 연구결과 부부갈등과 의사소통과의 관계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홍기혜(2000)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한국 남편들은 결혼이란 제도 안으로 여성이 편입되자마자 대화나 감정의 교환을 통한 친밀성이 아니라 위계적인 성역할에 입각한 부부관계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의사소통 역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는 국가간의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더 강화되어, 부부관계가 계급관계화됨을 보여 준다고 했다.

정희원(2000)은 부부 갈등해소를 위한 의사소통 가족치료 연구에서 부부 갈등과 의사소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부부갈등에 상관이 높았던 변인은 부부 의사소통 패턴, 남편학력, 아내학력, 자녀의 수, 남

편 주장성, 남편 공격성 등이었다. 그리고 김상출(2000)은 부부의 갈등과 의사소통에서 각 변수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 평균대화시간, 자아존중감, 부부문제, 스트레스 수준, 남편의 지지 등이 부부의 갈등과 의사소통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으며 결혼만족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 부부갈등, 연령,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의사소통의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에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Satir 이론에 근거하여 비난형, 평가형, 회유형, 혼란형 네 가지 변인을 사용하고자 하며, 앞에서 살펴본 부부갈등 제 요인 중 김오남(2006), 김영희·정선경(2007), 양영숙(2008) 등이 최근에 연구한 네 가지 부부갈등 요인 영역인 개인적 영역, 부부관계 영역, 공동생활 영역, 제 삼자 영역 간의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2)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거의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지지 요인 즉,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와의 관련성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권지아(2010)는 부부의 성격유형과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방식의 관계 연구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부부의 성격유형에 영향을 주며 부부갈등해결방식에서는 비공식적 자원체계인 시어머니, 친척, 남편, 자녀 등의 정서적 지지나 물질적 지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잠숙(2010)은 중년기 부부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연구에

서는 중년기 부부갈등해결은 집단모임을 통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부갈등을 도와주는 공식적 자원체계인 집단의 정서적 지지 및 평가적 지지의 개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준하(2010)는 부부갈등 치료를 위한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연구에서 부부갈등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회복지기관 등 사회적 자원체계의 물질적 지지 및 평가적 지지 그리고 정서적 지지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사회적 지지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조미나(2010)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 부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는 노래심리치료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노래심리치료라는 정서적 지지가 부부 상담 관련 기관이나 복지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노래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옥(2010)의 결혼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신혼기 부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연구결과를 보면, 결혼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신혼기 부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이러한 개발은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나 상담센터 등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들의 관계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은미(2010)의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부모효능감 및 부부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를 보면, 부부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복지관 및 상담센터 등의 사회적 자원체계에서의 정서적 지지 및 물질적 지지 그리고 평가적 지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조소영(2009)의 한국 부부의 기능적 의사소통을 위한 목회상담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감소시키고 기능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회의 정서적 지지

및 물질적 지지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홍미기(2009)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부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였고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도 상호간 관계성이 있다고 보았고 조수경(2009)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및 정서표현갈등간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부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사회적 지지 중 가족이나 친척 등 비공식적 자원체계의 정서적 지지, 그리고 외부의 동료나 집단인 비공식적 자원체계의 정보적 지지 및 평가적 지지 그리고 사회적 자원체계인 복지기관이나 상담센터 등의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최지명(2007)도 국제결혼 부부(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의 의사소통 방식, 정서적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국제결혼 부부(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의 의사소통 방식 중 부부간 상호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감소는 사회적 지지에 있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결혼만족도가 향상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선미(2003)는 가족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성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가족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그 중 부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나 부부갈등 등의 해결은 바로 사회적 지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청소년 비행성향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조절 및 매개효과가 있는지 조사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3)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거의 많지 않으므로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Rose, Miorwsky와 Goldsteen(1990)은 결혼만족의 요인 중 부부갈등은 전형적으로 모든 형태들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우울, 불안, 그리고 심리적 문제들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위험행동을 감소시키며, 정서적 회복을 도와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김시연(2008)은 부적응 도식 및 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부부 지지의 매개 및 중재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간 갈등 등으로 일어나는 초기 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가 배우자 지지의 매개하는 경로를 통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밝혀졌으므로,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우자 지지를 높이는 방법으로의 접근을 고려해야 했고 부부간 갈등 등으로 일어나는 초기 부적응 도식과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지지의 중재효과도 검정되었는데, 이는 부부의 지지의 매개 및 중재효과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결혼과 관련된 상담 장면에서는 치료의 과정에 부부의 지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부부갈등해소프로그램, 부부관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덕(2004)은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

나 부부갈등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고. 장지혜(2007)는 배우자나 가족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여성일수록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이 줄어든다는 암시적 제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김희수(2010)는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줄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나정(2008)은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부갈등도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혜경(2008)은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줄어듦으로써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신영(2010)은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이 부부갈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조정혜(2009)는 부부갈등지각이 낮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고, 부부갈등 지각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갈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할 경우, 부부갈등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이 잘 적응된다고 하였다.

강순정(2008)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아졌음을 밝혀냈는데, 이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을 부부간 정서적 지지 등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감소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즉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 요인인 부부갈등과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신영·정현희(2010)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통하여 부모의 부부 갈등이 줄여들며 이로 인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행동이 감소된다고 주장하였다.

공미혜·오세자(2010)는 국제결혼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는데, 이는 부부갈등 해소가 결혼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며 이를 위해 부부갈등 감소에 사회적 지지의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수지(2010)는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제공의 매개효과가 부부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 적응은 바로 부부갈등해소에 있는데, 이러한 부부갈등 해소는 바로 사회적지지 제공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진주(2010)도 빈곤과 부부불화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연구에서 부부불화로 인해 부부갈등이 초래하고 이러한 부부갈등은 바로 가정해체 및 이혼까지 가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를 위해 부부불화의 원인 제공인 부부갈등은 바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부부갈등에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조절 및 매개효과가 있는지 조사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4)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에 연구결과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외 선행연구 중심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 관계,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고찰하는것으로 본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갈등이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효과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요인(Miller, 1991; Charles, 1993; Cobb, 1976; Flowers, Schneider, & Ludtke, 1996; Lu, 1997; Turner,1981)이 다루어지고 있고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자 외, 2006).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되면, 보호적 또는 완충적 효과로 인해 스트레스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이 강한 노인의 경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노인보다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악영향에 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다(Krause, 1986; Krause, 2004).

빈곤층은 만성적인 경제적 고통으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 지지가 높다면 경제적 스트레스원인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Belle, 1990).

Rudd(1990)에 의하면,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 하에 있는 개인은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면 자살사고가 증가하고, 아울러 대인간의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되어 고통의 정도가 더 상승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친구나 가족, 기타 주요한 타인과의 사회적인 관계가 빈약하고 이들로부터의 지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자살행동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De Man & leduc, 1995)를 보여준바, 이러한 연구들은 갈등,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에서 사회적 지지가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Yang과 Clum(1994)은 우울, 무망감, 여러 가지 대인적 갈등관계로 인하여 자살사고를 가져오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사회적 지지 모델을 제시하였고, 동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모델을 검증한 바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인간관계 갈등이나 자살사고와 우울, 무력감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주여성들의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밝히는 국내선행연구와 국외선행연구 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이주여성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 홀로 새로운 문화로 편입되는 존재이지만, 기존의 국외선행연구들은 가족전체가 이주를 선택한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다. 즉 후자는 단순한 '이주여성'(immigrant women)이라 정의하지만, 전자는 결혼을 통해 홀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이라 정의한다. 즉 두 대상에게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적응과정에서 그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모국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원이 없는 타문화 생활권으로 혼자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 갈등 속에서 부부관계 적응에 갈등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 요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외국에서 이뤄진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 간의 선행연구들(Naidoo, 1985; Smith, 2005)은 다양한 이주민(이민여성, 노동자, 이민가족, 유학생, 망명자, 임시체류자, 임시거주자, 관광객 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 간에 대부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극소수이지만 최금해(2006), 노하나(2006), 이소래(1997), 이승종(1996)등은 사회적 지지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부부갈등 감소 등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의 하나인 배우자의 지지와 문화적응 및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연구한 Naidoo(1985)의 연구에서는 지지적인 남편이 있는 아시아의 여성들이 부부갈등에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나다 난민자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여러 체계적 시도에 직면하게 되는 이주자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2005). 호주남성과 결혼하여 호주에 거주하는 태국 결혼이주자의 질적 연구(Liamputtong, 1997)도 가정 외의 환경에서 지지가 없으면 점점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느껴 주변으로부터 강력한 정서적 지지를 원하게 되고 이는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렇지만 Ataca(1996)와 Martin-Schallmoser(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자체보다는 불안, 우울, 정신 신체적 적응 문제가 결혼생활에서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배우자가 아닌 친구나 기타 의미 있는 타자(이웃, 친척)의 지지도 중요한 사회적 자원인데, 같은 나라 출신인 사람과의 관계는 일시 체류자나 이민자 모두에게 중요한 지지원천으로, 본국 출신 친구가 있는 것이 심리적 안정이나 문화적응 및 부부갈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ykes & Eden, 1987; Berry et al, 1987 Ying & Liese, 1991). 이에 반해 이민을 간 국가의 현지인과의 상호관계 및 현지인 친구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현지인 친구가 이민자들의 부부갈등 감소와 관련이 있었고(Furnham & Li, 1993), 현지인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가 체류자들의 부부갈등 감소와 부부적응에 상관적 관계를 가진다(Seales & Ward,

1990). 결혼이주여성은 아니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현지인 친구들과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과 관련된 만족도를 높이고 있었고, 동시에 부부갈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neberg & Hull, 1979). 또한 이민의 경우 현지인, 즉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관계를 늘리고 그들과 접촉이 많을수록 부부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의 학습이 촉진되고 일반적인 적응과 만족수준이 증가함으로써 부부갈등보다는 부부관계가 만족스럽다는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Berry et al., 1987; Lysgarrd, 1955; Pruitt, 1978).

Kuo7와 Tsai(1986)는 아시아 집단의 부부문제나 부부갈등에서 야기되는 우울증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요인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의 유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같은 국가 출신의 친구들이나 의미있는 타자, 현지에 사는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는 모두 이민자, 체류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Yeh와 Inose(2002)도 사회지지망 효과가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나 중국인 신혼 부부보다는 한국 신혼 부부들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종교활동이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 중 하나로 부부갈등 해소 및 부부적응과 나아가서 문화적응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기업의 주재원,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주류문화 사람들의 지지가 부부적응에 큰 영향을 주고 동시에 부부갈등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Haily, 1996; Kopp, 1994).

난민의 경우에도 적응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요인은 사회적 지지였다. 캐나다에서 중국말을 할 줄 아는 베트남 사람은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캐나다에 사는 화교집단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Berry & Blondel, 1982). Shisana와 Celentano(1987)의 나미비아 난민연구에서도 역시 사회적 지지가 난민

들의 부부관계에서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부부 및 문화적응의 정도는 이주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체계와 지역사회의 타문화권에 대한 열린 태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Berry, 1997).

Synder(1987)의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여성들은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여성들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조사시점 이전 3개월간 차별, 성역활의 혼란을 경험하였으며, 부부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이 속한 사회와의 상호작용들은 정신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부부적응은 바로 문화적응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부부갈등을 해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주여성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체계인 국가, 지역사회, 기관들의 열린 자세, 인정, 이해가 오히려 부부 및 문화적응 수준을 달리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에 관련되는 기타 변인들로는 개인의 성격, 사회적 지지, 대처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소유여부, 부부 및 문화적응의 방식 및 인구학적 변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사회적 지지와 부부갈등의 대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즉 이민자, 이주자, 체류자들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이주자들의 정신건강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부갈등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Liamputtong, 1997; Sykes & Eden, 1987; Berry et al., 1897; Furnham & Li, 1993; Kuo & Tsai, 1986)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국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부부갈등 간의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회적 지지가 부부갈등을 감소한다는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사회적 지지가 부부갈등 상황에서 개인에게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거나 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부갈등 상황이 바로 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도움이 중요하다는 스트레스-대처 이론의 뒷받침(Cohen, 1979) 때문이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부부적응, 문화적응, 부부갈등 연구(Shisana & Celentano, 1987; Rhee, 2003; Finch, 2003) 등 중에서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아주 극소수로, 그 결과는 대부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vey와 Magna(2002)의 이주노동자들의 부부 갈등해소,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충분치 않은 사회적 지지가 부부갈등 증가와 관련 있음을 밝혀냈으며, Poyrazli 등(2004)은 미국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인구학적 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부갈등 간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부갈등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고 보고하였다.

Rhee(2003)와 Finch(2003)의 연구에서도 이주민의 자주모임 또는 동족친구들과의 만남의 여부가 부부갈등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모국문화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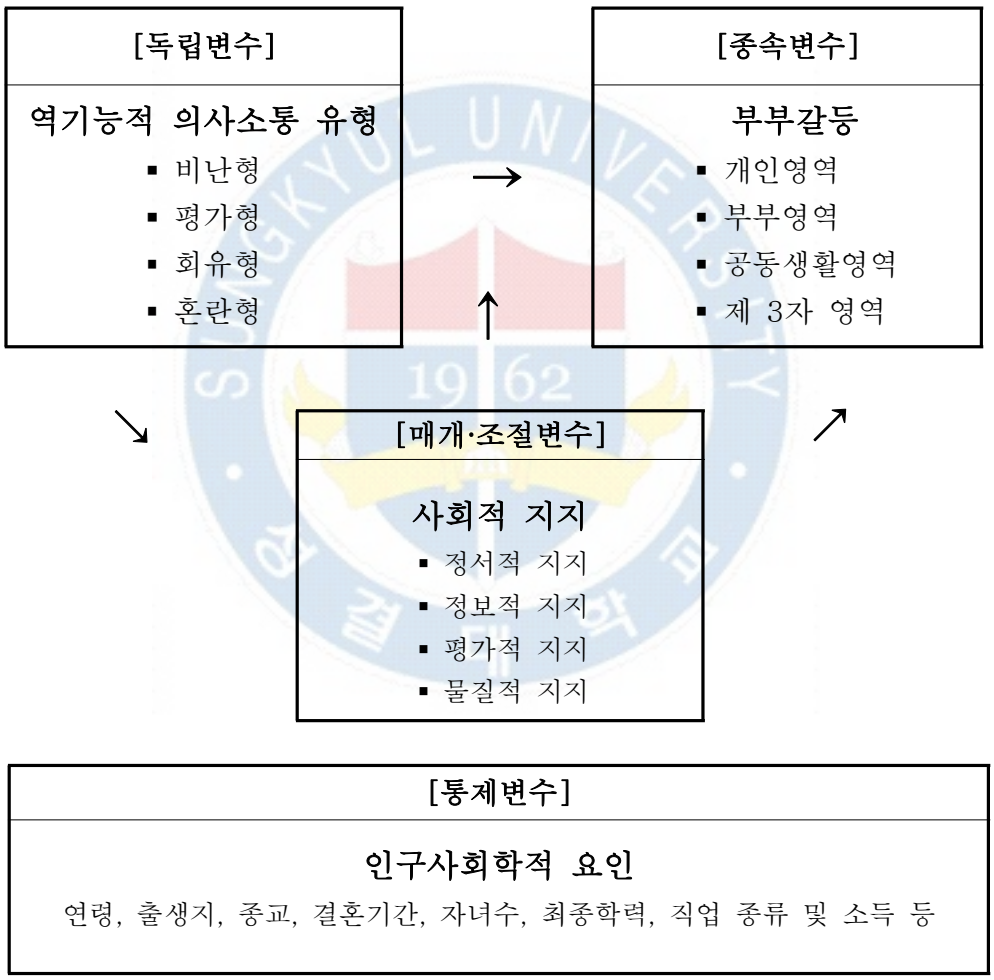
또한 Thomas와 Choi(2006)는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부적 관계가 크다고 보았으며, 사회적 지지는 부부간의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응과 정적 관계가 있고(Fontaine, 1986) 정신적 증상과 부부갈등,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출현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Lin, Tazume, & Masuda, 1979).

따라서 아직까지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부부갈등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에 대해 국내 연구들이 거의 전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미 검토된 선행연구들을 토대

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간접적으로 부부갈등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주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매개효과

(연구 문제 1)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있어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가설 1-1: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비난형, 평가형, 회유형, 혼란형)은 부부갈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비난형, 평가형, 회유형, 혼란형)은 사회적 지지 유형(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에 있어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성을 연구모형으로 도식화하면 앞에서 제시한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다.

2) 조절효과

(연구 문제 2)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인가?

가설 2-1: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정서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3: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평가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4: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정보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5: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물질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3. 연구의 설계

1) 조사의 대상

본 조사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사회적 지지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에 어떤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주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남성을 남편으로 둔 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은 복지관 관련 시설이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를 고려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2개 국어로 각각 제작하여 1차적으로 제작된 설문지를 번역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어, 베트남어의 번역 설문지는 중국, 베트남 출신의 한국어 통역가 즉, 본국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동시에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설문지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 설문지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부부갈등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총 3가지 척도와 통제변수가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변인을 Satir(1975)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비난형, 평가형, 회유형, 혼란형 네 가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이상순(1998)의 의사소통 유형 검사척도를 근거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5> 참조).

<표 5>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구분	하위영역	문항 구성
독립변수	비난형	7문항<1,5,9,13,17,21,24 >
	평가형	7 문항<2,6,10,14,18,22,25>
	회유형	5 문항<3,7,11,15,19>
	혼란형	6 문항<4,8,12,16,20,23>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한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표 6>과 같은데, Cronbach's α 계수 .881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한 조사도구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응답방식은 현재 일상생활에서 겪는 남편과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이주여성의 응답자가 느끼는 정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6>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영역별 및 전체 신뢰도

하위영역	신뢰도
비난형	.654
평가형	.838
회유형	.612
혼란형	.611
전체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881

(2) 부부갈등 척도

최근 국내의 선행연구들(이영실, 1989; 김갑숙, 1991; 이창만, 1992; 홍원표, 1993; 이경희, 1998; 조유리, 2000; 이규삼, 2000; 신경희, 2004; 양성은, 2005, 박형식, 2006)에 의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부갈등 척도가 개발되어 이들을 기초로 작성한 김오남(2006)이 만든 부부갈등척도를 본 연구자가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부부갈등 하위영역을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고 이 하위영역에 포함되는 요소(문항)들은 기존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을 포함시켰다. 척도의 구성은 영역별 3문항씩으로 총 12문항이다. 개인적 영역(3문항)은 성격, 생활습관, 사고방식의 요소로 구성되었고 부부관계영역(3문항)은 부부간의 성, 애정이나 관심, 외도나 부정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공동생활영역(3문항)은 금전관리 및 소비, 주거주택계획, 가족여가활동의 요소로 구성되었고 제 삼자영역(3문항)은 친인척, 자녀양육, 사회활동의 요소로 구성되었다(<표 7> 참조).

<표 7> 부부갈등의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구분	하위영역	문항 구성
종속변수	개인적 영역	3 문항<1,2,3>
	부부관계 영역	3 문항<4,5,6>
	공동생활 영역	3 문항<7,8,9>
	제 삼자 영역	3 문항<10,11,12>

본 연구에서 응답방식은 현재 부부생활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8> 부부갈등의 하위영역별 및 전체 신뢰도

하위영역	신뢰도
개인적 영역	.742
부부관계 영역	.746
공동생활 영역	.734
제 삼자 영역	.642
전체 부부갈등	.857

위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부부갈등에 대한 조사도구의 신뢰도 즉, Cronbach's α 계수 .857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부부갈등에 대한 조사도구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란 결혼이주여성들이 필요할 때 도움이나 감정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유용한 지지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으로서, 가족, 이웃, 친구, 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박지원(1985)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 척도 총 25문항을 윤혜정(1993), 엄인숙(2008) 등이 보완한 척도를 결혼이주여성들 상황에 맞추어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가지 하위척도 즉,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성되어 사회적 지지를 체계화 한 것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네 가지 하위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지지로 존경, 애정, 격려, 관심, 신뢰, 공감적 경청 등에 관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정보적 지지는 개인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지지로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제공 등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적 지지는 누군가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지지로 칭찬, 소질인정, 인격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고양, 의사존중 등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물질적 지지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의 지지로 필요시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에 대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표 9> 참조).

본 연구에서 응답방식은 현재 일상생활 중에 주위사람들(가족, 친구, 친척, 이웃, 직장동료, 전문가 등)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를 결혼이주여

성의 응답자가 느끼는 정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9>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구분	하위영역	문항 구성
조절변수	정서적 지지	7 문항<1,2,3,4,5,6,7>
	평가적지지	6 문항<8,9,10,11,12,13>
	정보적지지	6 문항<14,15,16,17,18,19>
	물질적 지지	6 문항<20,21,22,23,24,25>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조사도구의 신뢰도 즉, Cronbach's α 계수 .959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에 대한 조사도구를 매개 및 조절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10>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 및 전체 신뢰도

하위영역	신뢰도
정서적 지지	.898
정보적 지지	.914
평가적 지지	.875
물질적 지지	.898
전체 사회적 지지	.959

(4) 통제변수: 일반적 특성

최정자(2009), 홍민기(2008), 홍미기(2009) 등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본인과 남편 연령, 출생지(국가명), 종교, 결혼기간, 한국거주기간, 자녀수, 본인과 남편의 최종학력, 본인과 남편 직업, 직업종류, 가족 평균 월 소득, 동거가족, 한국국적여부,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본인의 한국어 실력과 남편의 귀하 나라 말 실력 정도의 16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구분	하위영역	문항 구성
통제변수	본인과 남편 연령, 출생지(국가명), 종교, 결혼기간, 한국거주기간, 자녀수, 본인과 남편의 최종학력, 본인과 남편 직업, 직업종류, 가족 평균 월 소득, 동거가족, 한국국적여부,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본인의 한국어 실력과 남편의 귀하 나라 말 실력정도	16문항

3) 조사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모집방법과 관련하여,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조사대상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주로 중국과 베트남이 가장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안양지역 건강가정센터, 성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 종교단체 등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표집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2010년도 3월 기

준으로 안양건강가정 지원센터, 성남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수원종교단체 등의 협조를 구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에 동의하고 설문조사를 수락한 결혼이주여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 관련 기관 3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첫 번째, 모든 설문지를 각자의 모국어(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였다. 베트남어 설문지의 번역 및 역번역은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10년간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베트남어 번역과 통역 일을 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 강사가 하였다.

중국어 설문지의 번역 및 역번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중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하였다.

두 번째,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자료 수집을 하였다. 본 설문조사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조사원과 연구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설문조사의 목적 및 세부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난 후 설문지에 나타난 지시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가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설문지에 답하도록 했고 설문 문항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께 동참한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와의 면접을 통해서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베트남어와 중국어 모두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서비스도 제공되었다. 베트남어 통역은 설문지 역번역을 해 주었던 분이 제공하였으며, 중국어 통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중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4월 25일까지였다. 설문지는 350부를 배포하여 280부를 회수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로서 불충분하게 기입된 설문지를 제외한 214부만을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pSS 16.0 프로그램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구하였고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를 통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역기능적 의사소통, 사회적지지, 부부갈등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넷째, F검증과 t검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역기능적 의사소통, 사회적지지, 부부갈등의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섯째, 부부갈등에 대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여섯째,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에 의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사회적지지, 부부갈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x2값과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fit Index)를 통해 평가하였다. x2값은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를 나타나며, 표집의 크기에 의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이순묵, 1990; 홍세희, 2000), x2값을 고려하는 동시에 자유도와 독립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를 통해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갈등에 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항을 위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상호작용분석을 위해 변인들을 센터링(centering)하고 센터링한 변인들을 서로 곱해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항은 위계적으로 투입

하여 상효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변량분석을 통해 조절효과의 그림을 제시하였다.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자의 시간적, 경제적 한계를 감안하여 경기 일부(수원, 성남, 안양) 관련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의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한 결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통제변수로 두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 매개 및 조절효과 변수로 사회적 지지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매개 및 조절효과의 다른 변수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거주지가 지역적인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역의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심도 있는 연구를 진전시키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이주여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2>와 같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214명이었다. 우선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9.49세(최소 20세, 최대 46세)로 비교적 젊은 연령이였고, 연령 분포별로 살펴보면,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126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70명으로 32.7%를 차지하였으며, 40세 이상은 18명으로 8.4%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출생국가는 중국이 112명(52.3%)이었고, 베트남은 102명(47.7%)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중퇴포함)이 79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 55명(25.7%), 대졸 이상 51명(23.8%), 초졸 이하 28명(13.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불교가 66명(30.8%)이었고,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78명(36.4%)이었으며, 기독교 49명(22.9%), 기타 12명(5.6%), 천주교 9명(4.2%)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자녀수에 있어서는 자녀가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8.1%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0.4%, 2명 15%, 3명 이상 6.6%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결혼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2.96년이었고, 조사대상자의 결혼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1명(28.5%)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가 한국에 이주한 기간은 평균 2.92년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 60명(28%)으로 한국이주기간은 조사대상자의 결혼기간과 유사하였다.

<표 1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대	20세 이상-30세 미만	126	58.9
	30세 이상-40세 미만	70	32.7
	40세 이상	18	8.4
출생국가	중국	112	52.3
	베트남	102	47.7
학력	초졸(중퇴포함) 이하	28	13.1
	중졸(중퇴포함)	55	25.7
	고졸(중퇴포함)	79	36.9
	대졸(전문대, 중퇴포함) 이상	51	23.8
	무응답	1	0.5
종교	기독교	49	22.9
	천주교	9	4.2
	불교	66	30.8
	종교없음	78	36.4
	기타	12	5.6
자녀수	0명	65	30.4
	1명	103	48.1
	2명	32	15.0
	3명 이상	14	6.6
결혼기간	1년 미만	25	11.7
	1년 이상-2년 미만	61	28.5
	2년 이상-3년 미만	46	21.5
	3년 이상-4년 미만	21	9.8
	4년 이상	61	28.5
한국이주기간	1년 미만	35	16.4
	1년 이상-2년 미만	60	28.0
	2년 이상-3년 미만	41	19.2
	3년 이상-4년 미만	19	8.9
	4년 이상	59	27.6
한국국적취득	예	75	35.0
	아니오	139	65

직업유무	유	41	19.2
	무	173	80.8
가족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4	11.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95	44.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9	27.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1	14.5
	400만원 이상	4	1.9
	무응답	1	0.5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75명(35%)으로 과반수보다 적은 수만이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다.

한편 조사대상자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4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9.2% 정도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평균소득에 있어서는 월 평균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95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59명으로 27.6%를 차지하였으며,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4명(11.2%)으로 나타났다.

<표 13>는 조사대상자의 남편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조사대상자 남편의 평균나이는 42.15세(최소 27세-최대59세)였고, 조사대상자와의 평균차이가 12.66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세 이상-50세 미만이 111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40세 미만인 경우가 73명(34.1%)이였으며,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6명 (12.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남편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82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72명(33.6%), 중졸 29명(13.6%), 초졸 이하 23명(10.8%)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조사대상자의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97명으로 전체의 92.1%가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 배우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사무종사자는 80명(37.4%)이었고, 단순노

무종사자 41명(19.2%), 개인사업체운영 40명(18.7%), 기술자 7명(3.3%), 기타 29명(16.4%)으로 나타났다.

<표 13>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남편 연령대	20세 이상-30세 미만	4	1.9
	30세 이상-40세 미만	73	34.1
	40세 이상-50세 미만	111	51.9
	50세 이상-60세 미만	26	12.1
남편 학력	초졸(중퇴포함) 이하	23	10.8
	중졸(중퇴포함)	29	13.6
	고졸(중퇴포함)	72	33.6
	대졸 이상	82	38.3
	무응답	2	0.9
남편 직업유무	유	197	92.1
	무	17	7.9
남편 직업유형	단순노무종사자	41	19.2
	기술자	7	3.3
	사무종사자	80	37.4
	개인사업체운영	40	18.7
	기타	29	16.4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와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관련변수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잠재변수의 하위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4>와 같이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 부부갈등 변수의 평균은 2.32점(표준편차 .63)을 나타냈고, 하위변인들은 개인적 갈등영역 평균 2.42점(표준편차 .82), 부부관계 갈등영역 평균2.15점(표준편차 .82), 공동생활 갈등영역 평균2.38점(표준편차 .84), 제삼자 갈등영역 평균2.28점(표준편차 .79)이었다. 하위변인들 가운데 개인적 갈등영역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고, 부부관계적 갈등영역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평균 2.49점(표준편차 .55)이었고, 하위변인들의 평균은 비난형 2.75점(표준편차 .62), 평가형 2.21점(표준편차 .78), 회유형 2.50점(표준편차 .67), 혼란형 2.50점(표준편차 .62)이었다. 이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에서 비난형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평가형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36점(표준편차 .64)이었고, 하위변인들의 평균은 정서적 지지 3.36점(표준편차 .69), 평가적 지지 3.47점(표준편차 .71), 정보적 지지 3.37점(표준편차 .68), 물질적 지지 3.24점(표준편차 .81)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변인 가운데 평가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지정도를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부부 갈등	2.32	.63	1	5
개인적 갈등영역	2.42	.82	1	5
부부관계적 갈등영역	2.15	.82	1	5
공동생활 갈등영역	2.38	.84	1	5
제삼자 갈등영역	2.28	.79	1	5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2.49	.55	1	4.52
비난형	2.75	.62	1	4.43
평가형	2.21	.78	1	4.71
회유형	2.50	.67	1	4.60
혼란형	2.50	.62	1	4.33
사회적 지지	3.36	.64	1.56	5
정서적 지지	3.36	.69	1	5
평가적 지지	3.47	.71	1.67	5
정보적 지지	3.37	.68	1.17	5
물질적 지지	3.24	.81	1.	5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변수의 자료특성과 분포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15>와 같이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West, Finch, Curran(1995)이 왜도가 2보다 크고, 첨도가 7보다 큰 경우 문제가 있다고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을 적용할 때,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정규분포 가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5> 주요 변인의 왜도와 첨도

변인	왜도	표준오차	첨도	표준오차
부부 갈등	.242	.168	.798	.334
개인적 갈등영역	.375	.167	-.568	.333
부부관계적 갈등영역	.459	.166	-.222	.331
공동생활 갈등영역	.192	.167	.239	.333
제삼자 갈등영역	.190	.166	-.293	.331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527	.167	1.716	.333
비난형	.092	.166	.173	.331
평가형	.803	.167	.467	.332
회유형	.230	.167	.168	.332
혼란형	.176	.167	.329	.333
사회적 지지	.119	.166	.382	.331
정서적 지지	.023	.166	.810	.331
평가적 지지	.140	.166	-.058	.331
정보적 지지	.014	.166	.665	.331
물질적 지지	-.323	.166	.143	.331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분석은 탐색적 연구에서 가설검증에 사용될 뿐 아니라 가설검증에 앞서 중요 변수들간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간의 대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5를 넘어설 경우 해당 변인들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이상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을 개별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정보적 지지의 분산팽창지수가 4.0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경우 분산팽창지수 기준치보다 낮아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 부부갈등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영역, 부부영역, 공동영역, 제삼자영역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간에는 각각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부부갈등의 하위요인들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요인들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개인적요인과 비난형은 상관계수 r=.238로 $p< .001$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평가형 r=.432 ($p<$ .001), 회유형 r=.369 ($p<$ .001), 혼란형 r=.414 ($p<$ .0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유사하게 부부요인, 공동요인, 제삼자요인 모두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상관성

을 보이고 있었고, 요인들간의 상관계수가 최대 .690 가량으로 이는 잠재변수 내 하위요인간의 상관계수이고, 지나치게 높지 않아 독립변수들간의 지나친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은 아니었다.

<표 16> 주요변인의 상관관계분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1											
②	.511***	1										
③	.577***	.469***	1									
④	.291***	.524***	.537***	1								
⑤	.074	-.043	-.009	-.074	1							
⑥	.012	-.159*	-.023	-.136*	.641***	1						
⑦	.053	-.069	-.082	-.063	.660***	.690***	1					
⑧	.044	-.068	-.055	.043	.622***	.651***	.648***	1				
⑨	.238***	.212***	.270***	.239***	.156*	.153*	.224***	.276***	1			
⑩	.432***	.513***	.463***	.407***	-.044	-.122	-.089	-.047	.408**	1		
⑪	.369***	.420***	.409***	.432***	.208**	.158*	.244***	.182**	.419**	.611**	1	
⑫	.414***	.508***	.403***	.384***	.153*	.146*	.168*	.244**	.646**	.583**	.635	1

① 개인적 갈등영역 ② 부부관계 갈등영역 ③ 공동생활 갈등영역 ④ 제 삼자 갈등영역 ⑤ 정서적 지지 ⑥평가적 지지 ⑦ 정보적 지지 ⑧ 물질적 지지 ⑨ 비난형 의사소통 ⑩ 평가형 의사소통 ⑪ 회유형 의사소통 ⑫ 혼란형 의사소통

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의 평균차이

1) 조사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평균차이 분석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이나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평균차이 검증 분석 결과, 연령대에 있어 40세이상 집단이 평균 73.55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1$). 그리고 출생국가가 중국인 경우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점수가 베트남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하지만 학력, 종교에 따른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수를 볼 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가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점수가 가장 높았고,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1$). 하지만 결혼기간이나 한국이주기간은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직업이 있는 경우가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점수가 65.95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집단이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점수가 가장 낮은 반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은 평균7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맞벌이인 경우였다.

<표 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평균차이

변수	구분	평균	F/t
연령대	20세 이상-30세 미만	61.25	6.627**
	30세 이상-40세 미만	61.75	
	40세 이상	73.55	
출생국가	중국	65.35	3.197**
	베트남	59.31	
학력	초졸(중퇴포함) 이하	59.50	0.865
	중졸(중퇴포함)	63.76	
	고졸(중퇴포함)	63.44	
	대졸(전문대, 중퇴포함) 이상	61.12	
종교	기독교	64.22	0.836
	천주교	59.88	
	불교	60.57	
	종교없음	63.84	
	기타	60.10	
자녀수	0명	63.95	2.570*
	1명	63.10	
	2명	56.37	
	3명 이상	65.15	
결혼기간	1년 미만	65.96	1.180
	1년 이상-2년 미만	59.62	
	2년 이상-3년 미만	63.67	
	3년 이상-4년 미만	61.38	
	4년 이상	63.25	
한국 이주기간	1년 미만	65.57	1.389
	1년 이상-2년 미만	59.28	
	2년 이상-3년 미만	63.64	
	3년 이상-4년 미만	61.52	
	4년 이상	63.39	
한국국적 취득	예	60.36	-1.639
	아니오	63.62	

직업유무	유	65.95	1.995*
	무	61.62	
가족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65.33	2.64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4.0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60.5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8.06	
	400만원 이상	76.00	

*** p<.001 ** p<.01 * p<.05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의 평균차이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이나 t검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평균차이 검증 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p < .001$), 40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은 34.88점을 보였다. 그리고 출생국가가 중국인 경우가 베트남인 경우보다 부부갈등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 하지만 학력, 종교, 자녀수, 결혼기간, 한국이주기간에 따른 부부갈등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부부갈등의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p < .05$),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1$),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점수와 유사하게 가족월평균소득이 300만원-400만원 미만인 집단이 부부갈등점수가 가장 낮았고,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은 부부갈등점수를 나타냈다($p < .001$).

<표 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의 평균차이분석

변수	구분	평균	F/t
연령대	20세 이상-30세 미만	27.58	9.113***
	30세 이상-40세 미만	26.65	
	40세 이상	34.88	
출생국가	중국	29.03	2.209*
	베트남	26.74	
학력	초졸(중퇴포함) 이하	28.21	0.054
	중졸(중퇴포함)	27.87	
	고졸(중퇴포함)	27.63	
	대졸(전문대, 중퇴포함) 이상	28.08	
종교	기독교	30.57	2.294
	천주교	26.11	
	불교	26.71	
	종교없음	27.25	
	기타	29.45	
자녀수	0명	28.60	1.738
	1명	27.97	
	2명	25.34	
	3명 이상	30.27	
결혼기간	1년 미만	26.56	0.463
	1년 이상-2년 미만	27.81	
	2년 이상-3년 미만	28.21	
	3년 이상-4년 미만	26.84	
	4년 이상	28.71	
한국 이주기간	1년 미만	26.60	1.422
	1년 이상-2년 미만	27.23	
	2년 이상-3년 미만	29.23	
	3년 이상-4년 미만	25.89	
	4년 이상	29.22	

한국국적취득	예	26.46	-1.962*
	아니오	28.72	
직업유무	유	27.12	3.112**
	무	31.19	
가족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0.95	4.74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9.0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6.3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4.20	
	400만원 이상	34.50	

*** $p<.001$ ** $p<.01$ * $p<.05$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차이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이나 t검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9>에 제시되었다. 연령대별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30세 이상-40세 미만인 경우가 사회적 지지점수가 87.81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40세 이상은 79.16점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p< .05$). 출생국가가 중국이라고 응답한 경우 사회적 지지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p< .001$), 종교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력, 자녀수, 결혼기간, 한국이주기간, 직업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가족의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집단이 가장 높은 사회적 지지수준을 보였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장 낮은 사회적 지지수준을 나타내 소득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1$).

<표 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차이분석

변수	구분	평균	F/t
연령대	20세 이상-30세 미만	82.84	3.148*
	30세 이상-40세 미만	87.81	
	40세 이상	79.16	
출생국가	중국	88.04	3.783***
	베트남	79.89	
학력	초졸(중퇴포함) 이하	80.53	0.719
	중졸(중퇴포함)	84.14	
	고졸(중퇴포함)	84.72	
	대졸(전문대, 중퇴포함) 이상	85.96	
종교	기독교	88.97	2.614*
	천주교	81.66	
	불교	79.59	
	종교없음	85.10	
	기타	84.45	
자녀수	0명	83.63	0.755
	1명	85.66	
	2명	80.90	
	3명 이상	83.61	
결혼기간	1년 미만	87.76	1.088
	1년 이상-2년 미만	82.90	
	2년 이상-3년 미만	81.52	
	3년 이상-4년 미만	82.52	
	4년 이상	86.49	

한국이주기간	1년 미만	80.88	0.575
	1년 이상-2년 미만	85.78	
	2년 이상-3년 미만	83.58	
	3년 이상-4년 미만	85.84	
	4년 이상	84.30	
한국국적취득	예	79.62	-3.082**
	아니오	86.60	
직업유무	유	88.12	1.760
	무	83.21	
가족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9.91	3.32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82.9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2.8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93.38	
	400만원 이상	83.00	

*** $p<.001$ ** $p<.01$ * $p<.05$

5. 측정모형 분석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 결과요인인 부부갈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을 설정한 후,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부부갈등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기존의 이론이나 경험적인 연구결과로부터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의 모형화를 위한 방법이고, 측정항목간의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강병서, 1999; Anderson, Gerbig, 1998).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리고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설명계수는 <표 21>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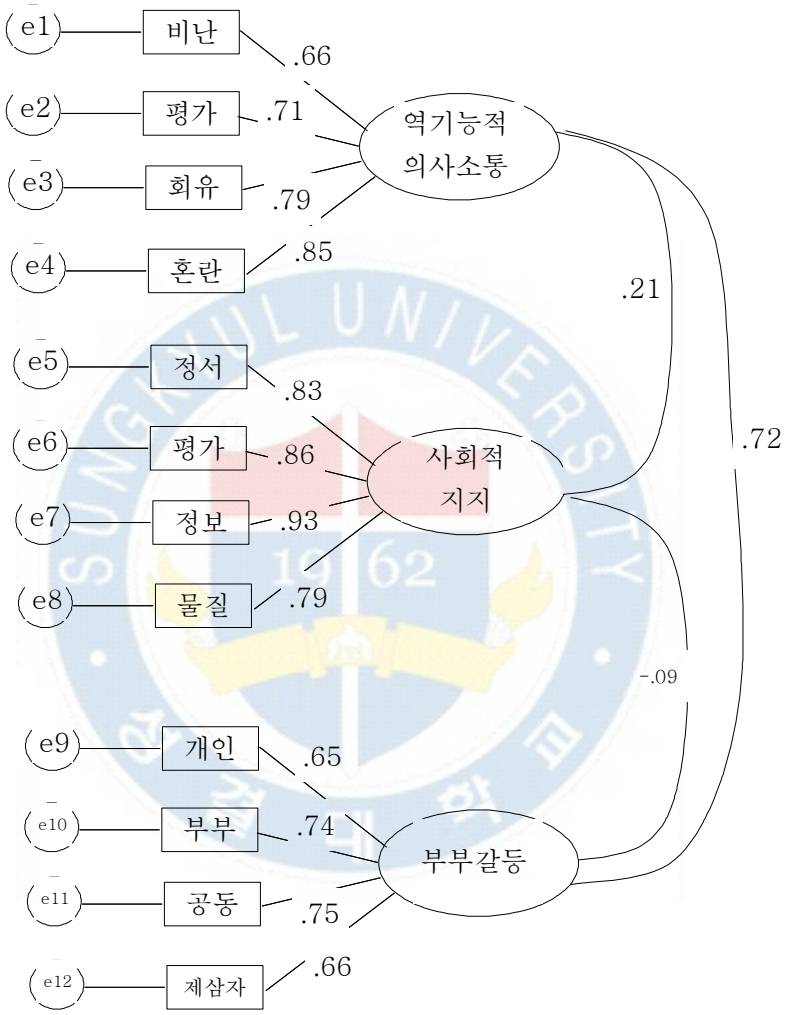
또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20>와 같이, x^2 값이 185.398(df=51)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x^2 값은 표집의 크기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순묵, 1990; 홍세희, 2000)이 있으므로, TLI(Tucker-Lewis Index, 비표준화 적합도지수), CFI(비교적합도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TLI는 1.0에 가까울수록 적합하다고 하며, .90 이상이어야 좋은 적합도는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CFI 역시 .90 이상에서 최대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계수, 2006). 또 RMSEA는 .10 이하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5보다 작을 때 이 모형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변수의 모든 CR(critical ratio)값[3] 이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경로로 추정되어 모든 측정변수가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30 이상일 때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에 따르면, 본

3) 추정치를 표준오차(SE)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1.96보다 크면 유의한 것으로 본다.

연구에서 측정변수가 모두 .650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유의한 수준의 회귀계수를 나타냈다. 모형에서 측정변수가 설명하는 변량을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는 모든 측정변수들이 .422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SMC의 적정수준의 기준이 .4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측정모형의 각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정도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x^2	df	p	TLI	CFI	RMSEA
확인적 요인 분석	185.398	51	.000	.975	.984	.10(.09-.11)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주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주2. *** p<.001

<표 21>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측정변인←잠재변인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SE	C.R.	p	SMC
비난←역기능적 의사소통	1.000	0.664				.441
평가←역기능적 의사소통	1.338	0.713	0.150	8.911	.000	.508
회유←역기능적 의사소통	0.895	0.778	0.094	9.555	.000	.605
혼란←역기능적 의사소통	1.090	0.854	0.107	10.149	.000	.729
정서←사회적 지지	1.000	0.825				.680
평가←사회적 지지	0.908	0.856	0.060	15.083	.000	.733
정보←사회적 지지	0.949	0.929	0.057	16.778	.000	.864
물질←사회적 지지	0.956	0.786	0.072	13.284	.000	.618
개인←부부갈등	1.000	0.650				.422
부부←부부갈등	1.134	0.736	0.134	8.484	.000	.542
공동←부부갈등	1.187	0.749	0.139	8.566	.000	.561
제삼자←부부갈등	0.987	0.661	0.125	7.850	.000	.437

2) 직접효과모형

직접효과모형은 부부갈등에 대해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표 22>는 이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낸 것이다. 모형의 x^2값 보다는 적합지표로 모형의 적합성을 파악하므로, 적합도 지수가 TLI=.973, CFI=.982, RMSEA=.10 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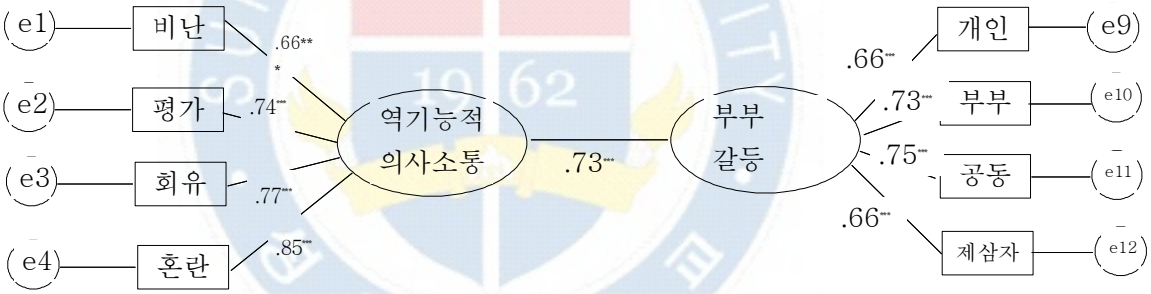
<표 22> 직접효과모형의 적합도

	x^2	df	p	TLI	CFI	RMSEA (95% 신뢰구간)
기초 모형	204.026	53	.000	.973	.982	.10(.09-.12)

[그림 3]은 부부갈등에 대해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미치는 직접효과를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표준화 측정값은 .73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도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23> 직접효과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SE	C.R.	p
부부갈등←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0.414	0.729	0.061	6.811	.000



[그림 3]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효과

주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주2. *** p<.001

6.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분석: 부분매개모형 중심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가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매개모형분석은 크게 두 가지의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첫째,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a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b가 유의한지, 그리고 매개효과 ab가 유의한지 부분매개효과모형을 이용해 평가하며 둘째, 경로 a와 경로b가 유의하고, 매개효과 ab가 유의하면, 매개효과가 있으므로 매개모형을 지지할 수 있다. 이때는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전매개모형은 부분매개모형에 포함된 모형이기 때문에 x^2 의 차이검사를 통해 두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x^2 검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부분매개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모형을 선택하게 된다(Baron과 Kenny, 1986).

이는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부분매개모형이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4] 참조).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표 2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부분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형의 x^2값=185.398($p<.001$)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합도 지수가 TLI=.975, CFI=.984, RMSEA=.10 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접효과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접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4>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x^2	df	p	TLI	CFI	RMSEA (95% 신뢰구간)
부분 매개모형	185.398	51	.000	.975	.984	.10(.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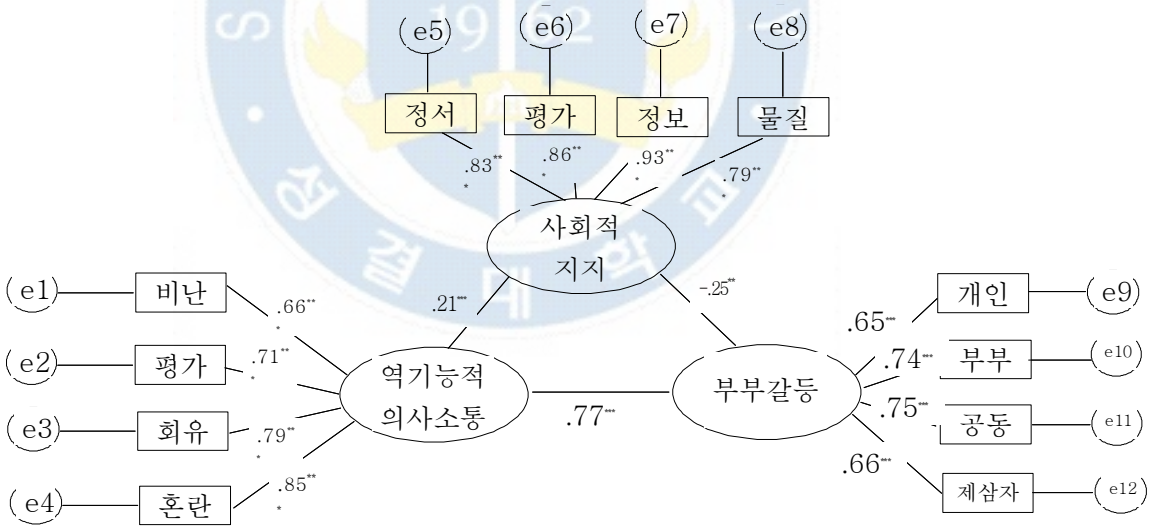
<표 25> 부분매개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B 추정치	β 표준화 계수	SE	C.R.	p
비난←역기능적 의사소통	1.000	0.664			
평가←역기능적 의사소통	1.338	0.713	0.150	8.911	.000
회유←역기능적 의사소통	0.895	0.778	0.094	9.555	.000
혼란←역기능적 의사소통	1.090	0.854	0.107	10.149	.000
정서←사회적 지지	1.000	0.825			
평가←사회적 지지	0.908	0.856	0.060	15.083	.000
정보←사회적 지지	0.949	0.929	0.057	16.778	.000
물질←사회적 지지	0.956	0.786	0.072	13.284	.000
개인←부부갈등	1.000	0.650			
부부←부부갈등	1.134	0.736	0.134	8.484	.000
공동←부부갈등	1.187	0.749	0.139	8.566	.000
제삼자←부부갈등	0.987	0.661	0.125	7.850	.000

총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효과분해는 총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총 효과는 .397이었고, 이중 직접효과는 .425이며, 간접효과는 -.0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부부갈등에 대한 효과크기 분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425	-.028	.397
사회적 지지	.286		.286



[그림 4] 부분매개모형

주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주2. *** p<.001

7.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평균차이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던 나이, 출생국가,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나이, 소득수준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고, 이중 출생국가는 중국=1로 가변수화하여 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확인하였다.

<표 27>에 제시된 모형1은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것으로, 설명력이 11.2%를 나타냈고,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 나이는 p<.01수준에서 정적 영향(β=.15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생국가는 중국인 경우가 p<.001수준에서 정적 영향(β=.25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역시 p<.001 수준에서 부적 영향(β=-.263)을 나타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출생국가가 중국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27>에 제시된 모형2는 부부갈등에 대한 통제변수를 투입 후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모형의 설명력이 41.1%를 나타냈고,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p<.001수준에서 정적 영향 (β=.57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통제변수	상수	23.446		5.976***	7.239		2.020**
	나이	.188	.150	2.206*	.092	.073	1.304
	출생국가	3.855	.251	3.626***	1.483	.097	1.649
	소득수준	-2.145	-.263	-3.877***	-1.446	-.177	-3.165**
독립변수	역기능적 의사소통					.571	10.096***
	R^2	.112			.411		
	수정된 R^2	.099			.399		
	F value	8.485***			35.026***		

*p<.05, ** p<.01, *** p<.001 +p<.10

또한 <표 28>는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45.7%를 나타냈고,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 부부갈등과 정적 영향 관계를 나타낸 것은 평가형 의사소통, 회유형 의사소통, 혼란형 의사소통이었다. 평가형 의사소통은 p<.001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나타냈고(β=.287), 하위요인 중 가

장 큰 영향정도를 나타냈다. 회유형 의사소통은 p<.01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나타냈고(β=.245),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은 p<.01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β=.268). 그러나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나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연구에서 한국인인 경우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하겠다.

<표 28>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통제변수	상수	2.233		8.747***	.830		3.229**
	나이	.014	130	1.739*	.007	.063	1.047
	출생국가	.202	158	2.067*	-.032	-.025	-.376
	소득수준	- .163	-.240	-3.505***	-.080	-.118	-2.101*
독립변수	비난형 의사소통(A)				-.097	-.095	-1.351
	평가형 의사소통(B)				.234	.287	4.023***
	회유형 의사소통(C)				.232	.245	2.827**
	혼란형 의사소통(D)				.277	.268	3.212**
	R^2	.104			.457		
	수정된 R^2	.091			.438		
	F value	7.810***			23.781***		

*p<.05, ** p<.01, *** p<.001 + p<.10

<표 29>은 통제변수,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변수,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위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41.7%를 나타냈고,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p<.001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β=.585). 그러나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p<.10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β=-.084).

<표 29>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3		
		B	β	t
통제변수	상수	10.507		2.492
	나이	.076	.060	1.063
	출생국가	1.654	.180	1.829
	소득수준	-1.342	-.164	-2.910***
독립변수	역기능적 의사소통	.324	.585	10.225***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	-.041	-.084	-1.460+
	R^2	.417		
	수정된 R^2	.402		
	F value	28.605***		

*p<.05, ** p<.01, *** p<.001 + p<.10

<표 30>는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역기능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이 모형의 설명력이 46.8%를 나타냈고,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 부부갈등과 정적 영향 관계를 나타낸 것은 평가형 의사소통, 회유형 의사소통, 혼란형 의사소통이었다. 평가형 의사소통은 p<.001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나타냈고(β=.252), 회유형 의사소통은 p<.01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며(β=.266), 혼란형 의사소통유형은 p<.01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β=.266). 그러나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나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절변수로 투입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영향을 살펴보면, 평가적 지지만이 p<.05 수준에서 부부갈등에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β=-.171).

<표 30>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지지 하위요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3		
		B	β	t
통제변수	상수	.921		3.043**
	나이	.010	.091	1.467
	출생국가	-.062	-.049	-.672
	소득수준	-.078	-.114	-1.973*
독립변수	비난형 의사소통(A)	-.096	-.094	-1.298
	평가형 의사소통(B)	.205	.252	3.334***
	회유형 의사소통(C)	.252	.266	3.011**
	혼란형 의사소통(D)	.287	.278	3.226**
조절변수	정서적지지(SS-1)	.086	.092	1.047
	평가적지지(SS-2)	-.156	-.171	-1.821*
	정보적지지(SS-3)	-.002	-.002	-.019
	물질적지지(SS-4)	.023	.029	.348
	R^2	.468		
	수정된 R^2	.438		
	F value	15.542***		

*p<.05, ** p<.01, *** p<.001 +p<.10

<표 31>는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 독립

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43.0%를 나타냈고,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었다.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p<.001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β=1.267). 이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부부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은 p<.01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957),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는 부부갈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지지를 통해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직접적인 조절변수이기보다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어떤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어떤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항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표 31>에서 제시된 세부적인 추가분석결과를 통해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1>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모형4		
		B	β	t
통제변수	상수	-12.629		-1.103
	나이	.089	.071	1.259
	출생국가	1.516	.099	1.688
	소득수준	-1.408	-.173	-3.074**
독립변수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701	1.267	3.968***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	.231	.474	1.801
상호작용변수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2.801	-.957	-2.170*
	R^2	.430		
	수정된 R^2	.413		
	F value	25.064***		

*p<.05, ** p<.01, *** p<.001 +p<.10

<표 32>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변수의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상호작용변수 가운데, 조사대상자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 상호작용항(A×SS-1)이 p<.05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나타냈고(β=-2.734),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평가적 지지 상호작용항(A×SS-2)

은 p<.01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며(β=4.515),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물질적 지지 상호작용항(A×SS-4)이 p<.05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β=-2.003).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 상호작용항(C×SS-1)이 p<.05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나타냈고(β=2.578),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과 평가적 지지 상호작용항(C×SS-2)은 p<.05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β=-2.198).

그러나 배우자 평가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배우자 혼란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간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 여성의 경우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평가적 지지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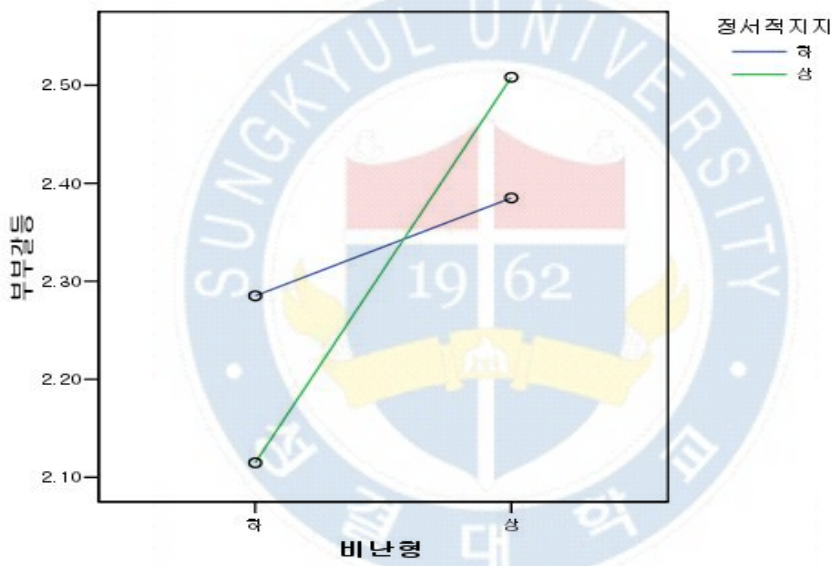
<표 32>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요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모형4		
		B	β	t
통제변수	상수	.226		.204
	나이	.010	.098	1.478
	출생국가	-.163	-.128	-1.645
	소득수준	-.104	-.153	-2.431*
독립변수	비난형 의사소통(A)	.502	.491	1.208
	평가형 의사소통(B)	.646	.793	1.807+
	회유형 의사소통(C)	-.069	-.073	-.148
	혼란형 의사소통(D)	-.099	-.096	-.240
조절변수	정서적지지(SS-1)	1.117	1.193	1.583
	평가적지지(SS-2)	-1.548	-1.696	-2.560*
	정보적지지(SS-3)	-.123	-.129	-.250
	물질적지지(SS-4)	.767	.969	1.945+
상호작용변수	A×SS-1	-.558	-2.734	-2.015*
	A×SS-2	.909	4.515	2.857**
	A×SS-3	-.200	-.990	-.803
	A×SS-4	-.379	-2.003	-2.143*
	B×SS-1	.073	.336	.520
	B×SS-2	-.086	-.403	-.420
	B×SS-3	-.193	-.909	-.816
	B×SS-4	.091	.444	.719
	C×SS-1	.539	2.578	2.255*
	C×SS-2	-.461	-2.198	-1.946*
	C×SS-3	.015	.071	.053
	C×SS-4	.013	.065	.081
	D×SS-1	-.346	-1.595	-1.198
	D×SS-2	.004	.018	.013
	D×SS-3	.496	2.266	1.477
	×SS-4	-.017	-.082	-.089
	R^2	.548		
	수정된 R^2	.479		
	F value	7.985***		

*p<.05, ** p<.01, *** p<.001 + p<.10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른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하위요인별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평균보다 크면 상집단, 평균보다 작으면 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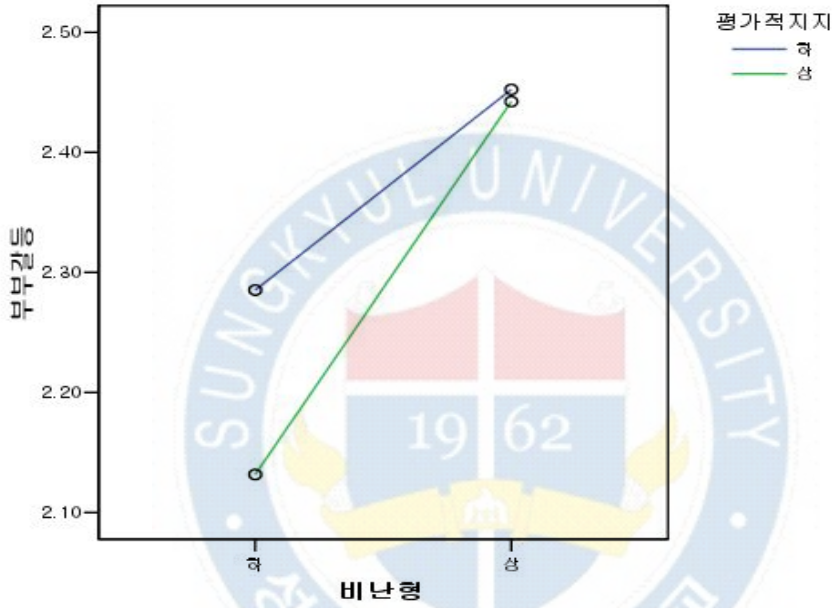
[그림 5]은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의 상호 작용

[그림 5]는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부부갈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부부갈등의 점수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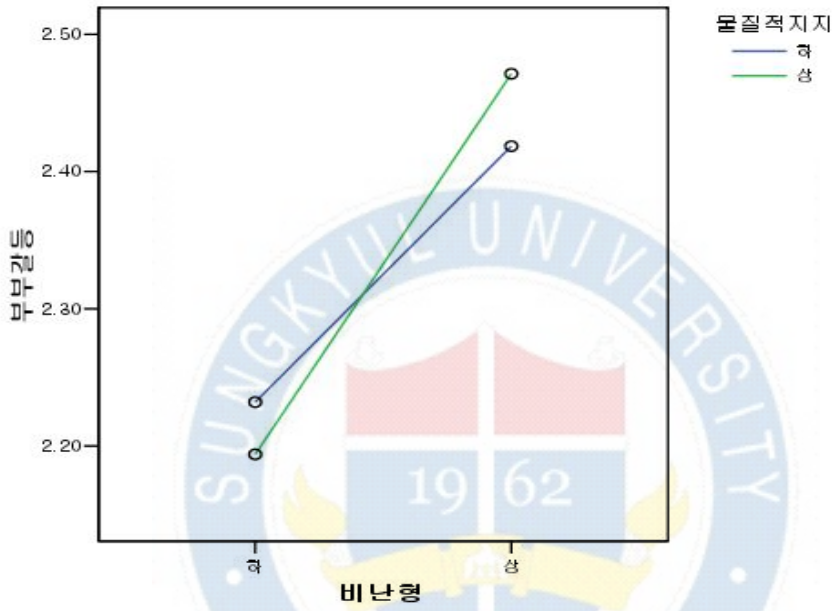
대한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평가적 지지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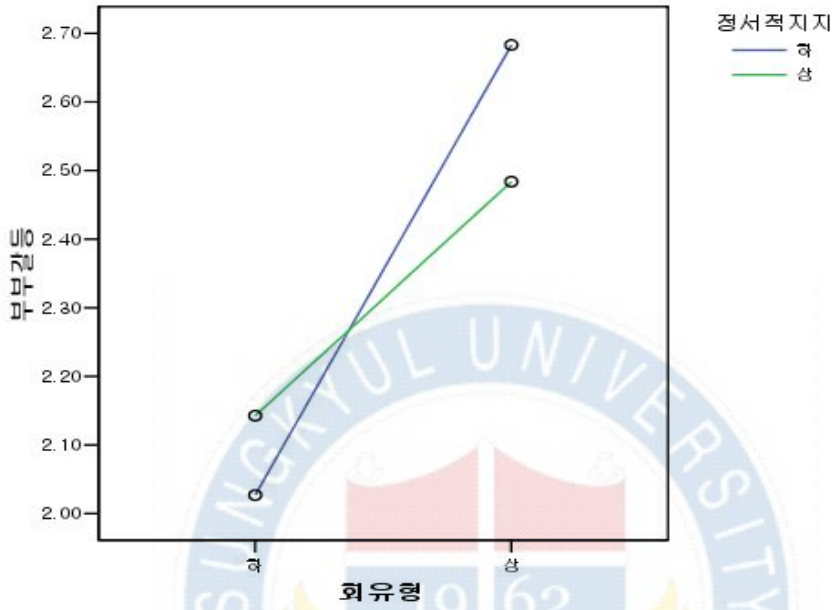
[그림 6]은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평가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평가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수준이 낮은 경우 평가적 지지가 높아지는 반면, 배우자 비난형의사소통수준이 높은 집단은 평가적 지지가 높은 경우나 낮은 경우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이 수준이 낮을 때에는 평가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 부부갈등이 낮게 나타나지만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이 높은 수준이

되면 평가적 지지와 관련 없이 부부갈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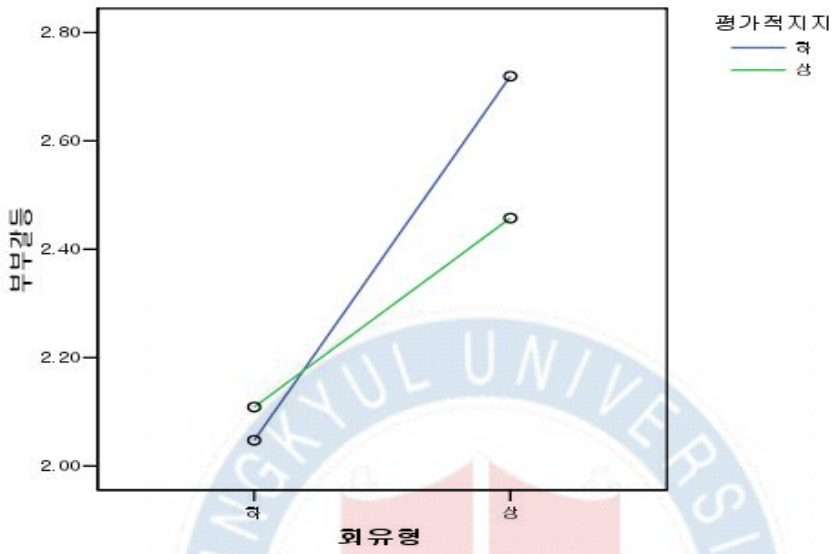
[그림 7]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물질적 지지의 상호작용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물질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그림은 [그림 7]과 같다. 물질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물질적 지지가 높은 집단보다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수준이 낮을 때 높은 부부갈등을 보이고,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이 높을 때에는 물질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나,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의 수준에 따라 물질적 지지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가운데 회유형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는 부부갈등에 대해 상호작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그림 8]와 같다.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부부갈등에 대한 평균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이 부부갈등이 급격하게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반면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이 높아지더라도 부부갈등이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완만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정서적 지지가 부부갈등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



[그림 9]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과 평가적 지지의 상호작용

사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부갈등에 대한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과 평가적 지지의 상호작용관계는 배우자 회유형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관계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그림은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에서 평가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부부갈등의 정도가 완만하게 증가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평가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이 높은 경우에 부부갈등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갈등은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이 높아지더라도 평가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부부갈등을 조절시켜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은 집단이 유의하게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출생국가가 중국인 경우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사대상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월평균소득이 낮아질수록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수준이 높아지지만 맞벌이인 경우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에 있어서도 연령이 가장 많은 집단이 부부갈등이 가장 높았고, 중국인인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가족소득이 적은 경우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았고, 출생국가가 중국인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가족월평균소득이 높은 경우 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접효과모형 분석의 결과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아질

수록 부부갈등도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간에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부분매개효과와 완전매개효과를 분석하였는바, 사회적 지지가 부분적으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는 부부갈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보다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는 조절변수로서 부부갈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p<.1$수준에서 유의한 정도에 비해, 역기능적 의사소통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은 $p<.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이 부부갈등을 완화시켜주거나 감소시켜 줌을 시사하고 있다. 하위요인별로 상호작용변인들을 살펴보면,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영향관계였고,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지지는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유형과 유의한 관계로서 정서적 지지가 높은 경우 부부갈등도 감소함을 의미하며, 평가적 지지는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의 유의한 관계로서 배우자 비난형의 사소통의 수준이 낮을 때에 평가적 지지가 높아지는 경우 부부갈등이 감

소하지만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이 높은 경우 평가적 지지와는 상관없이 부부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물질적 지지와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 물질적 지지가 낮을 때,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 경우 부부갈등이 높아지고,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수준이 높을 때, 물질적 지지가 높은 경우 부부갈등이 높게 조사 되었다. 또한, 정서적 지지와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유형과의 관계에서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경우 정서적 지지가 낮을 때 부부갈등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정서적 지지가 높은 경우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 유형의 정도가 높더라도 부부갈등이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평가적 지지와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는 평가적 지지가 높을 때,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 정도가 높더라도 부부갈등이 적게 나타났다. 이로써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부분매개 효과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2. 논의

이상의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부갈등도 심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우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수준과 부부갈등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수준이 부부갈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중에서 평가형 의사소통, 혼란형 의사소통, 회유형 의사소통의 순으로 부부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부부갈등의 요인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Satir의 의사소통이론에 따른 세부적인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영향요인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의 평가적인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평가형 의사소통유형이 높은 경우는 자신의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지나치게 고려하고, 완벽한 의사 처리와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의 혼란형 의사소통유형도 부부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 혼란형의 의사소통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대화주제에 대한 변화가 잦거나 비언어적 행동의 산만함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배우자가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문화나 환경에 대한 이해정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배우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이와 같은 의사소통유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 능력이나 문화이해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나 갈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함을 제안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

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는 부부갈등에 대해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부부갈등에 대해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평가적 지지의 상호작용,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물질적 지지의 상호작용,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과 평가적 지지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주변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부갈등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과 회유형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완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날로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배우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 및 조절을 개입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줄이고 기능적 의

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Satir 의사소통훈련 집단프로그램을 사회복지실천에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Satir 의사소통이론,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과정, 듣기 기본기술 배우기, 말하기 기본기술 배우기, 의사소통 규칙 확인하기, 감정 및 감정에 대한 감정표현하기, 지각체계의 점검과 사고표현하기, 기대와 열망 표현하기, 일치적 의사소통 표현하기, 갈등 해결을 위한 타협하기, 분노 다루기, 부부체계의 변화 등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및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지지 관련 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 비난형 의사소통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영향관계였고, 배우자 회유형 의사소통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으므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 비난형일 때는 정서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와 관련 있는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며 회유형인 경우, 정서적, 평가적 지지와 관련 있는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지지 서비스는 배우자인 남편이 지지해주는 비공식적 자원체계과 더불어 집단이나 동료,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 공식적, 사회적 자원체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이들에게 유용한 지지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사회관계망과 그와 관련된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기회 증진과 인적, 물적 사회적 지지자원 개발, 그리고 대인관계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 간 직장 및 부부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을 서로 의논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자조모임'의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나정(200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병서(1999). SPSS 통계분석.

강순정(2008).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유미(2009).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적응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유진·김숙자(1999)· 한·중 섭외혼인실태와 그 가족의 복지 : 한국남성과 중국 조선족여성과의 섭외혼인실태와 그 가족의 복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생활연구 4.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61-109

강은령(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취업주부/비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인(1990).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은비(2009) 부부관계 유형에서 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피해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미혜·오세자(2010). 국제결혼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산지역 베트남, 필리핀 여성과 한국 남성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권지아(2010). 부부의 성격유형과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방식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 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계수(2006).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김계행(1991). 이혼에 관한 문의적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나영(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와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덕자(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초당대학교 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자·권오실(1996). 부부간의 갈등정도와 갈등관리방법연구 : 첫 자녀가 초등학생 이하인 부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지 11,65-74

김삼열(2006). 기독교 가정의 부부갈등회복을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출(2001). 부부갈등과 의사소통. 장로회신학대 교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숙(2008). 가족치료와 부부성장을 위한 사티어의 모형연구. 서울신학대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영(2003). 개인특성 및 의사소통에 따른 부부적응관계 연구-자아존중감, 정서 안정성 및 의사소통유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시연(2008) 부적응 도식 및 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관계 : 부부 지지의 매개 및 중재효과.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희(1993).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수(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김영자(1992). 도시지역주민이 경험한 부부간의 갈등요인·갈등정도·정신건강상태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오남(2006a).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오남(2006b).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8,33-76.

김이례(2003).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학업 자아개념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철(2008). 여성결혼 이민자의 결혼만족애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경(1991).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록(2006). 기독교인 부부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엽·이서원(1997). 부부의 의사소통과 가정폭력. 한국가족복지학 p.91.
김정옥(1993). 합리적-정서적 접근 부부상담 프로그램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2007). Satir의 의사소통 이론과 상담심방 적용 가능성 연구.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미(2008). "국제결혼 이주자의 이주 동기 및 과정: 중국, 베트남, 몽골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혜경(2008).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현(1996). 성생활 만족도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은여·권정혜(1997). 수줍음도 지나치면 병. 학지사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맹주선(2002). 부부갈등에 대한 의사소통이론을 통한 목회상담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 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승완(2008). 중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권과 전남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희(2004).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목회상담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동(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한국의 광주·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대혁(2009). 부부갈등 이해와 그 해결을 위한 목회적 적용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영(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형식(2006).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경희(2007). 장애아동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양육부담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경자(1981).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생활행복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설경옥(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설기문(1997).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학지사.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편]. 여성가족부.

성지혜(1996). 중국동포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결혼 연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진분(2008).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말희(1986).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말희(1990). 기혼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8(2), 31-48.

송병호(2009).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내 폭력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성자(1975).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미8군 정신위생과에 의뢰해온 미8군인배우자를 가진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성자(1985). 한국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종용(1988).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이중과제의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지영(2002). 사회복지사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 사회적지지, 부부간의 의사소통,성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숭실대 통일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연구 - 대전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0.

양선화(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료집.

양성은(2005).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원 석사논문.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양철호 등(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6).

왕석순(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 불안의식과 결혼만족에 관한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엄인숙(2008). 여가활동과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중년과 노년을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여진주(2010). 아동학대 보호요인의효과 : 부모 및 아동의 사회적 지지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양옥(2006). 교회 내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의 효율성 연구. 총신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옥(2010). 결혼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신혼기 부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정숙(2004).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과 가정폭력.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윤형숙(2004).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최협 외(편저). 서울 : 한울 아카데미.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남(2009).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행동 및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규삼(1999).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일국적가정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금연(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두영(2001).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기독교적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아세아연합 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영·박혜인(1995). 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 문제 및 대응 행동 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순(1998). 심리 경향에 따른 의사소통유형 분석 : Jung과 Satir의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 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묵(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이숙자(2006).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 적극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상담학회.

이승종(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이신영(2010)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 :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신영·정현희(2010).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행동 :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6호

이영실(1989).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 요인과 성생활 불만족의 정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실·이윤로(2008). 정신건강론. 창지사.

이영자·장경애(2002). 결혼초기 주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와 갈등관리 방법 및 갈등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1).

이원숙(1992). 사회적 망과 사회적 지지이론: 실천적 접근. 서울: 홍익제.

이잠숙(2010). 중년기 부부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 한알 집단상담 모델을 중심으로. 서울벤처정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주희(2000). 취업부부의 역할 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성역할 정체간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5(1), 43-59.

이창만(1992).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창주(2007). 스트레스와 학교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의 역할.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13.

이형철(2008).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동양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회지 28(1).

이화연(2005). 부부갈등 극복과 이혼위기 극복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진아(2006).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부모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아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영주(2003).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부부미술치료 사례.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보인(2005).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 의사소통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영덕(2004).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연구 : 장수군 중심으로. 한일장신대 아시아태평양 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천석(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 유형에 관한 질적비교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기순(2005). 부부 갈등 요인과 문제 해결중심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미나(2010). 장애아동 부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노래. 심리치료 사례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수경(20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및 정서표현갈등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소영(2009). 한국 부부의 기능적 의사소통을 위한 목회상담학적 연구 사티어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정혜(2009)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갈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혜진(2001) 노년기 부부의 가족응집성과 사회적지지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배근(1985). 커뮤니케이션학개론. 나남.

최경숙(2006).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금해(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규련(2001). 한국 농촌여성의 성역할태도, 부부간 지위수준 및 지위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최선희·전명희(1999). 우리나라 부부갈등과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8, 284-308

최숙철(2001). 기독교인의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 Satir의 이론적용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 학원 석사 학위논문.

최양진(2008). 부부갈등 극복을 위한 의사소통 요인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실(2005). 융 심리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샤티어 의사소통 유형이론의 재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경(2005).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명(2007). 국제결혼 부부(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의 의사소통 방식, 정서적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2-2008). 외국인 처의 국적별 이혼건수, 외국인 처의 국적별 혼인건수.

통계청(2008). 2006년 결혼, 이혼 통계 결과.

통계청(2009. 12). 2008년 결혼이주여성 국적별 혼인건수.

통계청(2009. 12). 2008년 결혼이주남성과 여성 국적별 혼인건수.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한주연(2002). 한・일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경자(2005). 결혼의 질과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 영역.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1.

홍기혜(2000).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홍미기(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홍원표(1993). 도시 맞벌이 부부의 갈등관리 : 부산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준하(2010). 부부갈등 치료를 위한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taca & Berry(2002). Psychologic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Baron, R.M., &Kernny, D.A.(1986). The moderate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erry & Blondel(1982).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on stress. 21(3), 491-509.

Belle(1990). Law and educational poilcy : determinants. practices. and consequences of student grouping.

Bienvenu, M.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er, 19, 26-31.

Canary & Spitzberg(1989). Approach to conflict by social support. p.37-39.

Choi(2006).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al social support.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cine, 38, 300-314.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Psychology.* 13, 99-125.

Cohen, S.,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Collins(1975).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newspaper readership. 67-80.

Dean, A. & Lin, N(1977). The Stress 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5, 403-413.

De Man & Leduc(1995). Rlationship between level of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with stability of self-esteem as moderator.

Finch(2003). Culture shock. psychologial reaction to unifamiliar enviromment. 66.

Flowers, A. F., Schneider, H. G., & Ludtke, H. A.(1996).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in mothers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5(3/4).

Fontaine, G.(1986). Roles of social support in overseas relocation: Implications for intercultural training. Intercultur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alations* 10, 361-378.

Haily(1996). Immigration, acculteration and adaptaion. An intercultural review. 46, 5-34.

Jones(1984). The role of technical and prejudice in hemeneutics. UMI.

Knecht House(1981).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a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Koerner Jacobson(1994).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University at Buffalo.

Kopp(1994). Exceptional children in the schools. Holt.

Liamputtong, P.(1997). Motherhood and the chanllenge of immigrant mothers: A Personal Reflection. Families in Society 82(2),

195-201.

Lin, Tazime & Masuda(1979).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 *College Journal* 31, 473-479.

Lu, I.(1997). Social support, reciproc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7(5), 618-628.

Martine-Schallmoser, L., Tellen, S., & Macmullen, N. J.(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on postpartum depression in 329-338.

Perel(2000). International marriage, social aommunity relation. 26-31.

Pruitt, F. K.(1978). Adaptation of African students to American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1, 90-118.

Sarason(1990). Leader in community psycholo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hisana, O., & Celentano, D. D.(1987). Relationship of chronic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style to health among Namibian Refige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4, 145-157.

Turner, R. J.(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 357-367.

Virginia Satir(1983).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Wethington & Kessler(1986). The daily inventory of stressful experiences. 41-55.

Yang, B. & Clum, G. A.(1994).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skill predictive of depressive symptom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n Asian student population: A test of a model. Suidice & Life-Threatening Behavior, 24(2), 127-143.

Yeh, C., & Inose, M. H.(2002). Difficulties and coping strategies of

Chinese, Japanene, and Korean, immigrant students. Adolescence, 37(145), 69-82.

부록 : 설문지

<부록 1> 중국어 설문지

大家好:

随着多文化时代增加的趋势中本研究为了查明结婚移民女性夫妻之间的沟通及夫妻纠纷再为了减少夫妻纠纷及查明社会支持因而提高结婚女性的家庭生活而实行了本次问卷调查。以后我将会为大家的社会工作者而努力的。本次问卷调查是为了成当成洁研究院社会福利科博士论文中主题为“结婚移民女性供认夫妻纠纷使受到的影响--社会支持调节效果和检定-”的基础材料及分析而必要的过程。

大家答辩的内容按照统计法会匿名处理，确保秘密， 除了使用在本次研究目的以外，不会用于其它目的，请正确的答复。 谢谢

.

2010 年 1 月
成洁研究院
社会福利科 博士过程
指导教授：李英石
研究者：李贤宇

Ⅱ. 问卷纸

※关于本问卷调查如有疑问请联系
研究者：李贤宇(010-2776-3893) ○ e-mail : lhw413@hanmail.net

调查日期	2010 年 _____月 _____日		
调查地区			
问卷**号**			

I. 下列是结婚移民女性的基本事项.

请在各项中,用"✓" 来选择相应答案及填写括号中答案

1. 您的年龄是?（　　）岁

2. 您丈夫的年龄是?（　　）岁

3. 您来韩国之前的国籍是（　　）

4. 您的宗教是?

①基督教　　②天主教　　③佛教　　④无

⑤其它 :(　　)

5. 您结婚有多长时间了? （　　）年（　　）个月

6. 您来韩国有多长时间了? （　　）年（　　）个月

7. 您有几位子女? （　　）位

8. 您的最终学历是?

① 小学未毕业　② 小学毕业　③ 初中未毕业

④ 高中毕业　⑤ 大学未毕业

⑥ 大学毕业　⑦ 研究生

9. 您丈夫的学历是?

① 小学未毕业　② 小学毕业　③ 初中未毕业

④ 高中毕业　⑤ 大学未为毕业

⑥ 大学毕业　⑦ 研究生

10. 您有职业吗?

① 无　② 有

10-1. 职业是什么? （　　）

11 您丈夫有职业吗?

① 无　② 有

11-1. 您丈夫的职业是什么?

① 农夫　② 渔夫　③ 工程师
④ 劳务人员　⑤ 公司职员
⑥ 个人事业　⑦ 其它 :(　　)

12. 家庭成员平均每月收入是?

① 未满 100 万
② 100 万以上-未满 200 万—
③ 200 万以上-未满 300 万
④ 300 万以上-未满 400 万
⑤ 400 万以上

13. 目前跟您一起生活的家庭成员是?

① 丈夫　② 丈夫和子女
③公婆与丈夫和子女　④公婆与丈夫
⑤ 其它 :(　　)

14. 您现在的国籍是韩国国籍吗?

① 是　② 否

15. 您与韩国人结婚的理由是什么? 请选择下列最适合的事项.

① 为了在发达国家（韩国）生活　② 为了支援本国家庭的经济
③ 只为了离开本国　④ 为了在韩国就业
⑤ 家庭，亲属的劝说　⑥ 为了与丈夫的爱情
⑦ 为了宗教　⑧ 其它 :(　　)

16. 您的韩语水平和您丈夫会您母语的水平各属于下列哪一项?

区分		非常好	好	一般	不好	很不好
16-1 我的韩语水平	(甲)说	1	2	3	4	5
	(乙)听	1	2	3	4	5
	(丙)读	1	2	3	4	5
	(丁)写	1	2	3	4	5
16-2 丈夫会我国语的水平	(甲)说	1	2	3	4	5
	(乙)听	1	2	3	4	5
	(丙)读	1	2	3	4	5
	(丁)写	1	2	3	4	5

(请在适当的号码上划 上'O')

Ⅱ. 您和丈夫在日常生活处理事情过程中， 回想对方的态度，并请描述当时的想法和感受。

请仔细阅读下列内容，在符合的事项里划上'O'.

内容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	完全正是
1. 丈夫意识到我，而表达不出自己的感情。	1	2	3	4	5
2. 丈夫忽视我的建议.	1	2	3	4	5
3. 丈夫处理事情时很沉着，但丈夫有时候从我口中会听到冷漠的一词。	1	2	3	4	5
4.丈夫在我的质问下，反应迟钝，有时回答出毫不相干的答案。	1	2	3	4	5
5. 丈夫对我不满时，也不会表现出自己的感情。.	1	2	3	4	5
6. 丈夫常说我的过失和缺点.	1	2	3	4	5
7. 丈夫为了证明自己的主张会引用客观的材料与证据.	1	2	3	4	5
8. 丈夫对我的话题上集中不下，经常更换主题。	1	2	3	4	5
9.丈夫对我过于的谦虚.	1	2	3	4	5
10. 丈夫命令我，指示我，要控制我.	1	2	3	4	5
11. 丈夫解决状况想的比什么都重要.	1	2	3	4	5
12.丈夫总是换想法，对相谈的话题总要分散我的注意力。	1	2	3	4	5
13. 丈夫解决事情的时候会看我的眼神.	1	2	3	4	5
14. 丈夫与我发生冲突时不会让步并主见很强.	1	2	3	4	5
15. 丈夫对我讲原则， 很和理.	1	2	3	4	5
16. 我心情不好时丈夫会开玩笑或用幽默语把话题转换.	1	2	3	4	5
17. 丈夫对我没发过火，生气了也只会埋在心里。	1	2	3	4	5
18. 因为丈夫的口气是攻击性的，所以我很难接近他。	1	2	3	4	5
19. 丈夫从我口中总会听到过于的合理及过于的公正。	1	2	3	4	5
20. 丈夫有什么事，事先绝不会告诉我，而即兴地说出来.	1	2	3	4	5

内　容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	完全正是
21. 丈夫为了讨好我，即使跟我的意见不同，但也不会主张自己的意见。	1	2	3	4	5
22. 我要忠告丈夫时，他也会找出我的缺点反驳攻击。	1	2	3	4	5
23. 丈夫从我口中会听到，不能集中，散漫之词。	1	2	3	4	5
24. 丈夫因为我而心情不好时，只会无条件的忍耐。	1	2	3	4	5
25.我侮辱丈夫时，他会马上抱负我。	1	2	3	4	5

Ⅲ. 下列是夫妻之间的纠纷。.

1. 关于您在去年 1 年里与丈夫的纠纷或摩擦感受到的有关情节，请在适当的项目中标 “√”

内　容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	完全正是
1. 我觉得和丈夫性格不符而有摩擦.	1	2	3	4	5
2. 我觉得和丈夫的生活习惯(睡觉,吃的，卫生观念，回到家里的时间等)不一致而有摩擦.	1	2	3	4	5
3. 与丈夫的思考方式及价值观不一致而感到有摩擦.	1	2	3	4	5
4. 与丈夫性生活不圆满感到有摩擦.	1	2	3	4	5
5. 因为丈夫对我的爱情和关心不足而感到有摩擦.	1	2	3	4	5
6. 因为丈夫的外遇及不正当的关系而感到有摩擦.	1	2	3	4	5
7.与丈夫为经济问题而感到有摩擦.	1	2	3	4	5
8. 与丈夫居住，住房（维修，买卖，搬家）等问题感到有摩擦。	1	2	3	4	5
9.因为与丈夫的休闲活动（趣味生活，休假旅行）等问题感到有摩擦。	1	2	3	4	5
10.与丈夫的亲戚及亲属（婆家，娘家,兄弟姐妹等）问题而有摩擦.	1	2	3	4	5
11.与丈夫为了子女的养育问题及教育问题而感到有摩擦.	1	2	3	4	5
12. 与丈夫的社交活动（各种聚会，宗教活动等）感到有摩擦.	1	2	3	4	5

Ⅳ. 结婚移民女性的「社会支持」的内容.

内 容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	完全正是
1. 周边的人总是呵护我，爱我.	1	2	3	4	5
2. 我和周边的人在一起的时候让我感到有亲切感	1	2	3	4	5
3. 我周边的人总是把我的问题倾耳细听.	1	2	3	4	5
4. 我周边的人能让我信任依赖.	1	2	3	4	5
5. 我周边的人总关心考虑我的事情.	1	2	3	4	5
6.我周边的人在我不能决定事情而迷茫的时候，鼓励我，给我勇气	1	2	3	4	5
7. 我周边的人在我心情不好时，理解我，使我转换心情。	1	2	3	4	5
8. 我周边的人值得我学习和尊敬.	1	2	3	4	5
9. 我周边的人当我处于困难的时候，总会帮助我克服困难.	1	2	3	4	5
10. 对于我碰到不知道或不理解的问题时，总会帮我说明解释。	1	2	3	4	5
11.我周边的人为我理解现实生活，适应社会生活给于我适当的忠告.	1	2	3	4	5
12.我周边的人当我发生困难时愿意为我找出原因，提供有用的情报，帮我解决困难.	1	2	3	4	5
13. 我周边人在我要选择事项的时候，给我合理性的建议.	1	2	3	4	5
14. 周边的人我做什么，是否对错都会公平的评价.	1	2	3	4	5
15. 周边的人让我感到对他们有所必要有所价值.	1	2	3	4	5
16. 周边的人对我所作的事情给于认证给于自信心	1	2	3	4	5
17. 我表现良好时，周边的人称赞于鼓励.	1	2	3	4	5
18. 周边的人尊重我的人格.	1	2	3	4	5
19. 周边的人尊重我的意见，接受我的意见.	1	2	3	4	5
20. 当我需要钱的时候周边的人会乐于帮助我	1	2	3	4	5

1. 下列是关于您在日常生活中从亲属（家庭成员，朋友，亲戚，邻居，同事）感受到的有关情节，请在适当的项目中标“√”.

内　容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	完全正是
21. 亲属不能直接帮助我时，会拜托其他人帮助我.	1	2	3	4	5
22. 不管什么事情亲属都愿意帮助我.	1	2	3	4	5
23. 发生问题时亲属认为我付出时间会跟我商量对策.	1	2	3	4	5
24. 亲属在我需要什么物品时，都会借给我使用.	1	2	3	4	5
25. 在我生病时，亲属会帮我做我该做的事情.	1	2	3	4	5

<부록 2> 베트남 설문지

Ⅱ.PHIẾU THĂM DÒ Ý KIẾN

Xin chào tất cả các bạn !!!!

Đây là bản nghiên cứu được tiến hành nhằm tìm hiểu kỹ hơn và giúp giảm bớt những bất đồng về giao tiếp cũng như mâu thuẫn trong quan hệ vợ chồng của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đang dần dần đi lên theo chiều hướng phát triển một cách nhanh chóng của xã hội đa văn hóa. Và phiếu thăm dò này là dữ liệu cơ bản và cần thiết trong việc phân tích về mâu thuẫn của vợ chồng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về sự giúp đỡ mang tính chất xã hội, mức độ hài lòng trong hôn nhân nhằm giúp cho luận án học vị tiến sĩ chuyên ngành xã hội phúc lợi của Viện Cao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SungKyol.

Nội dung trong phiếu thăm dò của các bạn sẽ được quản lý bằng cách không ghi tên theo luật thống kê và đảm bảo bí mật ,đồng thời không sử dụng với mục đích khác ngoài mục đích nghiên cứu. Vì thế rất mong các bạn trả lời một cách đầy đủ và chính xác.

Xin chân thành cảm ơn sự cộng tác quý báu của các bạn

Tháng 2 năm 2010
Quá Trình Tiến Sĩ Khoa Xã Hội Phúc Lợi
Viện Cao Học Trường Đại Học SungKyol
Giáo Sư Chỉ Đạo :LY YOUNG SIL
Người nghiên cứu :LY HYON WOO

I. Sau đây là những vấn đề thông thường cửa phụ nữ kết hôn nhập cư .Bạn hãy đánh dấu ✓vào câu trả lời thích hợp.

1. Bạn bao nhiêu tuổi ? ( )tuổi

2. Chồng bạn bao nhiêu tuổi ? ( )tuổi

3. Tên quốc gia ,nơi mà bạn sinh ra ? ( )

4. Tôn giáo của bạn là gì ?

①Đạo tin lành( ) ②Thiên chúa giáo( ) ③Đạo phật( )
④Không tôn giáo( ) ⑤Tôn giáo khác :( )

5. Bạn đã kết hôn được bao lâu? ( )năm ( )tháng

6. Bạn đã đến Hàn Quốc được bao lâu ? ( )năm ( ) tháng

7. Bạn có mấy người con? ( )người

8. Học lực cao nhất của bạn ?
①Chưa tốt nghiệp cấp 1( ) ②Tốt nghiệp cấp 1( )
③Tốt nghiệp cấp 2( ) ④Tốt nghiệp cấp3 ( )
⑤Tốt nghiệp đại học chuyên ngành hoặc bỏ dỡ nữa chừng( )
⑥Tốt nghiệp đại học( ) ⑦Cao học trở lên( )

9. Học lực cao nhất của chồng bạn?
①Chưa tốt nghiệp cấp 1( ) ②Tốt nghiệp cấp 1( )
③Tốt nghiệp cấp 2( ) ④Tốt nghiệp cấp 3 ( )
⑤Tốt nghiệp đại học chuyên ngành hoặc bỏ dỡ nữa chừng( )
⑥Tốt nghiệp đại học( ) ⑦Cao học trở lên( )

10. Bạn có việc làm hay không? ①Không có( ) ②có( )
10-1. Nếu có thì đó là việc gì ? ( )

11. Chồng bạn có việc làm không? ①Không có( ) ②Có( )
11-1. Nếu có thì đó là việc gì?
①Làm nông( ) ②Đánh cá( ) ③Kỹ sư( )
④Làm công nhân đơn thuần hoặc làm ngày( )
⑤Nhân viên công ty-văn phòng( )
⑥Kinh doanh cá nhân ⑦ Nghề khác( )

12. Thu nhập bình quân hàng tháng của gia đình bạn như thế nào?
①Dưới 1 triệu won( ) ②1 triệu won~ dưới 2 triệu won( )
③2 triệu won~ dưới 3 triệu won ( )
④3triệu won~ dưới 4 triệu won ( ) ⑤Trên 4 triệu won( )

13. Bạn đang sống cùng với ai?
①Chồng( ) ②Chồng và con( ) ③Bố mẹ chồng-chồng và con( )
④Bố mẹ chồng và chồng( ) ⑤Người khác( )

14. Bạn có đang duy trì quốc tịch Hàn Quốc không?
①có(　　)　　②không (　　)

15. Lý do mà bạn kết hôn với người Hàn Quốc là gì?
Hãy chọn một trong những lý do dưới đây
①Để được sống tại Hàn Quốc nơi phát triển về kinh tế(　　)
②Để giúp đỡ kinh tế cho gia đình ở quê nhà (　　)
③Chỉ muốn rời khỏi quê hương (　　)
④Muốn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
⑤Do gia đình và họ hàng đề nghị (　　)
⑥Vì yêu người chồng hiện tại(　　)
⑦Vì lí do về tôn giáo (　　) ⑧Lí do khác (　　)

16. Năng lực tiếng Hàn của bạn và khả năng nói tiếng Việt của chồng bạn ở mức độ nào?(đánh dấu 'O' vào câu trả lời thích hợp.)

Phân loại		Rất giỏi	Khá giỏi	Bình thường	Không thạo lắm	Rất tệ
16-1 Năng lực tiếng Hàn của bạn	(ㄱ)Nói					
	(ㄴ)Nghe					
	(ㄷ)Đọc					
	(ㄹ)Viết					
16-2 Năng lực tiếng Việt của chồng tôi	(ㄱ)Nói					
	(ㄴ)Nghe					
	(ㄷ)Đọc					
	(ㄹ)Viết					

Ⅱ. Dưới đây là những câu hỏi về vấn đề giao tiếp thường gặp trong cuộc sống hàng ngày của bạn và chồng bạn. Hãy đọc câu hỏi và đánh dấu ✓ vào câu trả lời thích hợp.

Câu hỏi	Hoàn toàn không như thế	Hầu như không như thế	Bình thường	Đại khái như thế	Rất đúng như thế
1. Bởi vì không hiểu tôi nên nhiều lúc chồng tôi không thể biểu hiện được suy nghỉ và tình cảm của mình.					
2.Chồng tôi coi thường ý kiến của tôi và chỉ làm theo y kiến của mình.					
3. Chồng tôi xử lý công việc 1 cách chính xác, tuy nhiên tôi thường nghe những lời nói thật lạnh lùng của chồng tôi.					
4. Chồng tôi không trả lời 1 cách thích đáng câu hỏi của tôi, nhiều lúc lại trả lời một cách vô lý.					
5. Đối với tôi tâm trạng không được vui nhưng chồng tôi không tỏ ra như thế.					
6. Chồng tôi hay tìm những sai lầm và khuyết điểm của tôi đẻ phê bình.					
7. Chồng tôi thường xuyên trích dẫn những chứng cớ hoặc tư liệu nhằm chứng minh một cách rõ ràng ý kiến của mình với tôi.					
8. So với việc tập trung vào một chủ đề thì chồng tôi hay thay đổi đề tài thảo luận.					
9. Chồng tôi khiêm tốn với tôi 1 cách qua đáng .					
10. Những lúc chỉ dạy tôi chồng tôi hay ra chỉ thị hoặc mệnh lệnh.					
11. Chồng tôi rất có tính chất lý tưởng, vì thế luôn đặt việc giải quyết vấn đề lên hàng đầu.					
12. Chồng tôi hay thay đổi suy					

nghĩ và làm phân tán sự quan tâm của tôi về chủ đề đang thảo luận.					
13. Chồng tôi hay để ý xem tôi như thế nào khi quyết định một việc gì đó.					
14. Chồng tôi rất cố chấp ,không nhân nhượng khi bất đồng ý kiến với tôi.					
15. Chồng tôi coi trọng nguyên lý nguyên tắc và đối phó với tôi một cách logic .					
16. Chồng tôi hay dùng những câu nói đùa hoặc những câu kỳ quặc để thay đổi hoàn cảnh những lúc tôi có khó khăn.					
17. Chồng tôi không trút giận lên tôi mà chỉ tự kiềm nén một mình.					
18. Tôi cảm thấy chồng tôi rất khó khăn bởi những lời xúc phạm của anh ấy đối với tôi.					
19. Đôi lúc chồng tôi cho tôi nghe những lời nói được coi là mang tính chất khách quan và hợp lý 1 cách quá đáng.					
20. Chồng tôi không suy nghĩ trước cho tôi mà chỉ nói một cách tùy hứng.					
21. Để phù hợp với tâm trạng của tôi chồng tôi không hề tranh cãi cho dù có bất đồng ý kiến của mình.					
22. Nếu như tôi khuyên nhủ chồng tôi thì chồng tôi cũng tìm những khuyết điểm của tôi để bắt bẻ hoặc công kích lại.					
23. Chồng tôi nghe những lời phê bình chỉ trích của tôi.					
24. Cho dù có giận tôi thì chồng tôi cũng tuyệt đối kiềm chế.					
25. Chồng tôi sẽ đáp trả ngay lập tức nếu như bị tôi xúc phạm .					

Ⅲ. Dưới đây là những câu hỏi có liên quan đến mâu thuẫn của vợ chồng. Hãy đánh dấu ✓ vào câu trả lời gần với suy nghĩ của bạn về vấn đề mâu thuẫn giữa vợ chồng trong 1 năm qua

Câu hỏi	Hoàn toàn không như thế	Hầu như không như thế	bình thường	Đại khái như thế	Rất đúng như thế
1. Cảm thấy mâu thuẫn do không hợp tính tình nhau.					
2. Cảm thấy bất đồng về thói quen sinh hoạt (thói quen ngủ, thói quen về ăn uống, quan niệm vệ sinh, thời gian trở về nhà....).					
3. Mâu thuẫn do khác biệt về suy nghĩ và tư tưởng.					
4. Cảm thây mâu thuẫn do không thỏa mãn trong sinh hoạt tình dục.					
5. Cảm thấy mâu thuẫn do thiếu tình cảm và sự quan tâm của chồng.					
6. Cảm thấy mâu thuản do sự phản bội hay thờ ơ của chồng.					
7. Cảm thấy mâu thuẫn với chồng do vấn đề kinh tế.					
8. Cảm thấy mâu thuẫn do vấn đề về định cư, nhà ở (sửa chữa, mua bán , chuyển nhà....).					
9. Cảm thấy mâu thuẫn với chồng do vấn đề hoạt động của gia đình trong thời gian rãnh rỗ (Hoạt động sở thích, đi chơi vào ngày nghỉ..)					
10. Cảm thấy mâu thuẫn từ quan hệ bà con họ hàng của chồng(nhà chồng, nhà ba mẹ ruột ,anh chị em...).					
11. Cảm thấy mâu thuẫn do vấn đề nuôi dưỡng và giáo dục con					

cái.					
12. Cảm thấy mâu thuẫn do hoạt động xã hội(họp mặt, hoạt động tôn giáo...).					

Ⅳ. Dưới đây là những câu hỏi về sự ủng hộ mang tính chất xã hội. Hãy đánh dấu ✓ vào câu trả lời thích hợp với suy nghĩ của bạn về những người xung quanh trong sinh hoạt hàng ngày.

Câu hỏi	Hoàn toàn không như thế	Hầu như không như thế	Bình thường	Đại khái như thế	Rất đúng như thế
1. Những người xung quanh lúc nào cũng yêu mến và chăm lo cho tôi.					
2. Những người xung quanh cho tôi cảm giác thân thiện mỗi khi tôi ở cùng họ					
3. Những người xung quanh lúc nào cũng quan tâm và lắng nghe những vấn đề của tôi.					
4. Những người xung quanh là những người có thể giúp đỡ và tin tưởng tôi.					
5. Những người xung quanh luôn luôn quan tâm và lo lắng cho công việc của tôi.					
6. Những người xung quanh cho tôi sự can đảm để tôi có thể quyết định việc mà tôi phân vân.					
7. Mỗi khi tâm trạng tôi không được vui thì những người xung quanh hiểu cho tôi và cố gắng để giúp tôi thay đổi tâm trạng của mình.					
8. Những người xung quanh là những người mà tôi kính trọng và có nhiều điều để học hỏi.					

9. Mỗi khi tôi gặp khó khăn những người xung quanh giúp đỡ tôi để tôi có thể khắc phục được nó.					
10. Những người xung quanh giải thích thật kỹ để tôi có thể hiểu những việc mà tôi không biết.					
11. Những người xung quanh tích cực động viên để tôi có thể hiểu được thực tại và thích nghi với sinh hoạt xã hội.					
12. Mỗi khi có việc gì đó xảy ra với tôi những người xung quanh cung cấp thông tin hữu ích để tôi có thể tìm ra nguyên nhân của vấn đề đó.					
13. Mỗi khi tôi phải chọn lựa một việc gì đó thì những người xung quanh cho tôi lời khuyên để tôi có thể quyết định một cách hợp lý.					
14. Khi tôi thực hiện một việc gì đó thì những người xung quanh đánh giá một cách thẳn thắn là việc đó đúng hay sai .					
15. Những người xung quanh cho tôi cảm giác là họ cần tôi và sự tồn tại của tôi là có giá trị.					
16. Những người xung quanh thừa nhận công việc của tôi để tôi có thể tự hào về việc mà tôi đang làm.					
17. Những người xung quanh không tiếc lời khen thưởng tôi mỗi khi tôi làm tốt việc gì đó.					
18. Những người xung quanh là những người tôn trọng nhân cách tôi.					
19. Những người xung quanh tôn trọng đón nhận ý kiến của tôi.					
20. Khi tôi cần tiền ,bất cứ lúc					

nào những người xung quanh sẵn lòng cho tôi mượn.					
21. Khi không thể trực tiếp giúp đỡ cho tôi thì những người xung quanh sẽ thông qua những người khác để giúp đỡ tôi.					
22. Những người xung quanh luôn luôn sẵn sàng giúp đỡ tôi hết lòng trong bất cứ việc gì.					
23. Những người xung quanh dành cho tôi thời gian và cùng tôi thảo luận mỗi khi có vấn đề gì đó xảy ra với tôi.					
24. Mỗi khi có đồ vật gì đó cần thiết cho tôi thì những người xung quanh giúp tôi để tôi có thể sử dụng nó bất cứ lúc nào.					
25. Những người xung quanh làm việc thay tôi mỗi khi tôi bị đau ốm.					

Ngày điều tra	Ngày ____ Tháng___ Năm____	Khu vực điều tra		Số thăm dò	

♥ XIN CHÂN THÀNH CẢM ƠN CÁC BẠN ĐÃ TRẢ LỜI HẾT TẤT CẢ CÁC CÂU HỎI.♥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in Marital Conflicts Between Women Migrated From Foreign Countries and Korean Men

- Focusing on the Mediating/Controll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

Lee, Hyun Woo
Dep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l University
Anyang, Korea
Advisor : Prof. Lee Young-Sil

By investigating the mediating and controll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in relation to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d marital conflicts that the women who immigrated from foreign countries for marriages (Women in Focus, hereafter) recognized,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of the involvement of social workers in response to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investigation.

To develop the research model, and to verify the validity of hypothesis, the actual life-conditions of the Women in Focus, their problems and their nature, the preliminary study was performed. The preliminary study was used to build theoretical background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communications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s, the concept of marital conflicts and their causal

issues, the concept of social supports, their types, and their effect. Finally, the study helped to clarify dysfunctional communications in relation to marital conflicts, in relation to social supports, and also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d marital conflicts in relation to social supports.

In this research, a survey was carried out to three hundred and fifty (350) Women in Focus. Among them, two hundred and eight (280) responded and two hundred fourteen were good enough to be used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r the analysis, SPSS version 16.0 and AMOS version 5.0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F-Test and T-Test were employed for the mean-variance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measurement model, the relationship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analysis of partial- and full- mediation effect were performed and finally, to verify the interaction effect the hierarchical regression was employed.

This research may be summarized according to the aims of the research as follow:

First,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irect effect model shows that the more frequent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the spouses of the Women in Focus is, the significantly higher marital conflicts were occurred. This means that dysfunctional communication has direct positive relationship to marital conflicts.

Second, based on Satir's communication types,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the spouses that the Women in Focus recognized, positively affect marital conflicts in the order of

computing communication types, distracting communication types, and placating communications types.

Third, in the analysis to find if social supports play a role 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the spouses that the Women in Focus recognized and marital conflicts, social supports were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the spouses and marital conflicts.

Fourth, hierarchical regression was employed to see if social supports play a role as a controlling effect between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the spouses of the Women in Focus and marital conflicts. The result show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supports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was relieved or lowered the seriousness of marital conflicts.

Based on the result obtained, the research presents the ways social workers to give a practical involvement in two aspects by uncovering the actual implications.

First, to decrease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s of the spouses of the Women in Focus and to change it functional, the spouses of the Women in Focus clearly need to be trained to communicate and therefore a group program as proposed by Satir is needed to be implemented in the social welfare practice. As for the details, it should include the communication theory by Satir and interaction processes of communication, learning basic skills of listening, learning the basic skills of speaking, confirming the communication rules, expressing one's emotion, introspecting perception systems, expressing one's thoughts, expressing

expectations and aspirations, congruent communication, reconciliation in response to conflicts, anger management, changes in spouse system.

Second, the services related with social supports for Women in Focus must be provided to lower marital conflicts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s. Since the research suggests that blaming communications are found to be significant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affective, evaluative, and material support, and placating communications are found to be significant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affective and support only, services must offer the ones that are related with affective, evaluative, and material support if type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is blaming, or with affective and evaluative support if type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is placating.

Also, along with informal resource systems supported by Korean spouses, such services must be centered around in the formal and social resource systems such as various programs, counseling supports by peer groups, co-workers, and social-welfare institutions and multi-cultural community centers. More importantly, to offer effective social support services,e institutions and mmust be taught to utilize such systems, to incand socialopportunities fromaught to al networks and their supports, to develop personal and material supports, and finally to develop interpersonal skills.

In addition, Women in Focus must be offered "self-supporting" social service during the weekends and or evening hours after work so that they can discuss the problems they experience at

work and or home to resolve them themselves.

<Keywords> Women who immigrated to Korea from foreign countries for marriage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spouses, marital conflicts, social supports(evaluational support, affective support, materi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group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by Satir, Self-supporting group